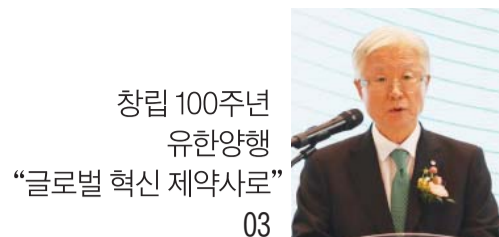


20일 Market Index			
↓ 코스피	9052.42	↓ 코스닥	966.59
	(-11.42)		(-34.34)
↑ 금리 (미국 3년)	3.784	↑ 환율 (원/달러)	1531.00
	(+0.034)		(+3.90)

metro 경제



‘반도체 독주’ 증시 양극화… 새 성장동력 절실

코스피 ‘1만시대’ 눈앞

삼전·하이닉스 시총서 55% 차지 코스피 반도체 쏠림 ‘K자형’ 양극화 상승종목 109개, 하락종목 791개 1분기 경제성장률 1.7% 달하는데 반도체 제외하면 0.8% 상승 불과

코스피가 1만선을 바라보고 있다. 코스피 급등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혁명이 낳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 훈풍을 타고 올 들어서만 세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두 회사의 실적 개선 효과만으로도 올해 코스피가 1만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코스피가 상승세가 지속 가능하려면 제2, 제3의 반도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5억 1427만 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의 거래량 비중은 지난달 4.95%에서 이번 달 6.24%(3210만주)로 더 늘었다. SK하이닉스는 0.89%에서 1.04%(535만주)로 각각 확대됐다.

두 회사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4.60%에 달한다. 상장지수펀드(ETF)도 반도체 쏠림 현상을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1~19일) ETF 수익률 1위는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31.22%)가 차지했다.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31.13%), ‘ACE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29.71%), ‘SOL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29.67%), ‘RISE SK하이닉스 단



휘발유·경유 가격 5주 연속 하락 2009.2원, 경유는 2,004.1원을 기록했다.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당 0.7원 내린 /뉴시스

일종목레버리지’ (28.25%),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27.06%)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지난달 27일 상장된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7종이 이달 ETF 수익률 상위권에 모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나아가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를 포함해 149개까지가 모두 반도체 관련 ETF였다. ‘KODEX 200통코스닥150 섹터’ (15위·18.18%)를 제외하면 21위까지 전부 반도체 관련 ETF였다. 그러나 반도체 쏠림과 ‘K자형’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증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확연히 갈리는 증시 양극화도 심화됐다. 코스피가 사상 첫 9000선에 올라선 지난 18일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 종목은 791개로, 상승 종목 109개의 7.26배에 달했다.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은 코스닥시장은 오히려 하락했다.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7%였지만, 반도체를 빼면 0.8%로 떨어진다. 증시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증시와 실물 경기의 괴리도 크다. 유가가 치솟으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했던 2022년 7월(9.2%)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도 함께 상승한다. 중동 전쟁 이후 소비자물가는 3월 2.2%, 4월 2.6%, 5월 3.1%로 매월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유튜브 채널 ‘삼프로티브이(TV)’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버블이라는 건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며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AI 대전환, 초혁신 기술 아이템 개발, 인력 양성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이슈까지 선진화시키겠다는 비전을 정부가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허정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韓 고용률 70% 진입 OECD 평균 ‘눈앞’ 25~54세는 하위권

우리나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정 기준으로 70%대에 진입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한국은 최근 3년 사이 이스라엘, 룩셈부르크를 제쳤다. 이어 올해 OECD 평균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15~64세(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70.0%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분기별 고용률이 70% 선을 찍은 것은 역대 처음이다. 한국은 38개 회원국 평균에 바짝 다가섰다. 평균치는 1분기 70.3%로 불과 0.3%포인트 차다. 한국 수치는 지난 수십년간 OECD 평균을 상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오는 2, 3, 4분기 고용률이 기대를 모은다.

순위 26위… 3년새 2계단 상승 네덜란드 고용률 82%, 日 80%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31위 불과 15~29세 청년 고용률 44% 그쳐

순위도 26위(37곳 중 25위이나 취합안된 아이슬란드 80%대 추정)로, 3년 사이 2계단 뛰었다. 2023년 1분기에 한국은 68.8%로 38개 회원국 중 28위였다. 이 기간 룩셈부르크(70.5%→68.7%)와 이스라엘(70.2%→69.3%)에 앞섰다.

우리나라는 2024년 4분기 69.6%에서 2025년에는 1분기 69.7%, 2분기~4분기 각각 69.9%로 수치의 상승 흐름으로 보여 왔다. 다만 네덜란드(82.2%), 일본(80.2%), 독일(77.3%), 호주(77.2%) 등에는 여전히 크게 뒤진다. 아꼴든 15~64세 비교에서 그간의 중하위권을 벗어나 중위권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창 일할 나이대인 핵심노동인구(25~54세) 비교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 1분기 한국의 이 연령대 고용률은 79.0%로, 순위가 38개국 가운데 31위였다. 룩셈부르크(85.0%)와 이스라엘(81.1%)도 이보다 위에 자리했다. 일본은 25~54세 고용률이 88.2%로 38개국 중 3위였고 OECD 평균(80.2%)도 한국보다 1%p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 15~24세(24.1%) 비교에서는 34위까지 처졌다. 밑으로는 4개국뿐이다. 국내에 선 학업 등의 이유로 상당수가 취업을 미루는 데 따른 결과이지만, 29세 이하 한국 청년층의 취업난은 이미 국가데이터 통계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올해 역시 일자리 부족이 진행 중이다. 이달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8%에 그쳤다. 올해 5월까지 25개월(전년동월 대비) 연속으로 후퇴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서울 아파트값 ‘꿈틀’… 보유세·양도세 강화 카드 꺼내나

靑, 내달 세제 개편에 관련법 담을 듯 반도체 호황, 부동산시장 상승 우려

청와대가 주택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시사하면서, 오는 7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세명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 역시 이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나중에 썬야 하는 수단인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정부가 이 같은 정책 판단을 한 것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는 점, 그리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하반기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기업 영업이익의 증대가 가시화되고, 일부 반도체 기업 등에서 거론됐던 역대급 성과급 지급도 이뤄진다. 이럴 경우 성과급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에, 정부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도 주택 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셈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정책실장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승률(3.8%)과 국내총소득(GDI) 상승률(13.2%)이 9.4%포인트(p) 격차를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민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급식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라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도 역부족일 수 있다. 이번에는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지난 8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집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우원식 “당의 분열과 반목 지켜보기 힘들어… 전당대회 나갈 생각 없다” /사진 뉴시스
- ▲조국혁신당 “靑 민정수석 한찬식 임명 우려… 반개혁적 전력”

- ▲송영길 “전당대회 출마 여부, 호남 민심 볼 것… 광주서 세 후보 중 내가 1등”
- ▲70대 운전 차량, 행인 2명 치고 오토바이 3대 광…1명 사망

- ▲검찰, ‘브로커 비용 광고비 위장’ 27억 포탈 혐의 안과 의사 기소
- ▲직장인 87% “플랫폼기업 책임 회피 막는 기준 마련해야”

조선업계, AI·디지털 기반 '선박 헬스케어' 사업영역 확장

단순 건조 넘어 관리 서비스 고도화

HD현대중 수중로봇 개발 추진
한화오션 함정 MRO 디지털 전환
삼성중 'SMHMS' 진단체계 구축



지난 6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중형선사업부 인근 부두에서 미 해군 소속 'USNS 앨런 셰퍼드'함이 정기 정비를 마치고 출항하는 모습. /HD현대

국내 조선업계가 운항 중인 선체와 장비 상태를 실시간 진단하고 정비 시점까지 예측하는 '선박 헬스케어' 기술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은 디지털 트윈·상태기반정비(CBM)·AI 예측 정비 기술을 앞세워 선박 관리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선박 건조 경쟁력에 더해 운항 이후 유지·보수·정비(MRO) 역량까지 차별화 요소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6일 계열사 및 KCC, 타스글로벌

등과 '토탈 헬 케어 솔루션' 공동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중로봇과 운항 데이터를 활용해 선체 상태를 진단하고 최적의 유지관리 시점을 제안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HD현대는 관련 수중로봇 개발을 주도한다. 장비 진단 분야에서

는 함정 통합 기관진단 솔루션 'HiCBM'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장비의 진동·전류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장비 상태를 진단하는 솔루션이다. 한화오션은 디지털 트윈·CBM·AI

기술을 결합해 함정 MRO를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설계·건설·운용·정비 전 과정을 연결하는 마린 디지털 스레드 구현을 추진하고, 로봇·드론 등 정비 자동화와 AI 분석 플랫폼으로 정비 의사결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해 센서가 없는 구역까지 선체 구조 건전성을 분석하고 정비 시점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선급(ABS) 최고 등급인 'Tier3' 개념승인을 획득했다.

삼성중공업은 기계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SMHMS)을 통해 주요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AI 기반 상태기반 정비 시스템(SCBM)으로 이상 탐지와 기계 진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유지보수 필요성을 제시하는 기술로 ABS 설계승인(PDA)을 획득했다.

조선업계가 예측정비에 주목하는 배경

에는 선주사의 비용 절감과 안전성 확보 수요가 있다. 국제 학술지 '해양과학·공학 저널(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Engineering)'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선박 유지보수·수리 비용은 운영비의 약 40%를 차지하며, 예측정비 도입 시 유지보수 비용을 최대 45%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어스에 따르면 글로벌 해양 예측정비 시장은 지난 2024년 4억 3300만달러에서 오는 2034년 30억 5800만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2025~2034년 연평균 성장률은 21.6%로 예상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 조선업계가 정비·서비스 영역까지 추격하는 상황에서 국내 조선사들은 친환경 선박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솔루션 제공 역량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dhale@metroseoul.co.kr



metro

최고금리 연 19.4% 혜택... 주거래 이력 등 우대금리 요건 주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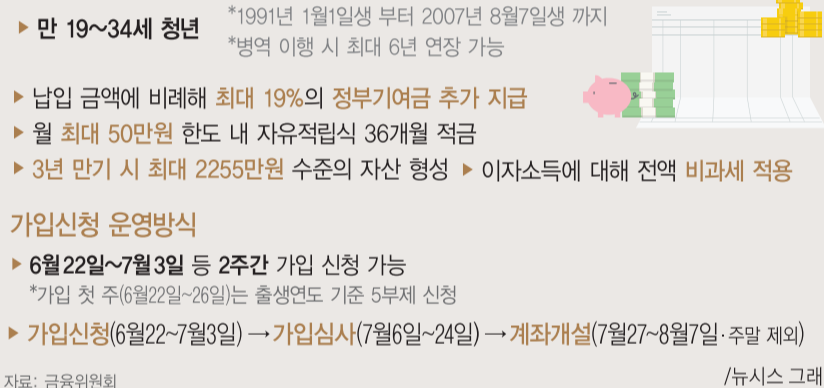
청년미래적금 출시

2주간 접수... 첫째 주 5부제 신청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은 불가

22일 출시되는 청년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절차와 운영 기관별 금리에 관심이 모인다. 소득과 납입액에 비례해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는 만큼, 금리에 따라 만기 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다. 12%의 기여금을 제공하는 '우대형' 청년미래적금에 최대 8%의 기관별 금리를 적용하면 최고 연 19.4% 금리의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3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수협·기업·부산·IM·경남·광주·전북·키카오)과 우체국은 22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2주간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을 접수한다. 첫째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접수하며, 둘째 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을 접수한다. 가입신청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

청년미래적금 개요



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에 해당하고 연 75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에 해당해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거나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은 12%의 기여금을 제공하는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전 취급기관은 연 5%의 기본금리에 가입기관별로 2~3%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연 7~8%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3%를 적용하고 만기까지 매달 50만원을 3년간 납입한다면 일반형은 88만원, 우대형은 93만원의 이자액을 더 받게 된다. 실질 금리는 우대형을 기준으로 최고 연 19.4%의 적금과

맞먹는다.

단,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 또한 직전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만큼, 올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청년이라면 이듬해부터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군인이나 육아휴직자의 비과세 소득은 소득으로 간주해 가입을 허용한다. 가입 요건은 최초가입 시에만 확인하지만, 우대형 가입 후 이직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이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최고 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기업은행, 그리고 우체국 등 7개 금융기관이다. 이외 7개 기관은 최고 2%p의 우대금리만 제공한다. 금리 요건으로는 급여이체 등 주거래 이력, 당행 카드 이용, 청년도약계좌와 연계가입 등을 우대금리 요건으로 제시했다. 단, 일부 기관은 청년도약계좌와 연계가입 시에만 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급여 및 가맹점대금 이체 1%p ▲공과금 납입이나 당행카드

이용 실적 충족 0.8%p ▲당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이력 있거나 6개월 이상 정기예금·적금 거래내역 없음 0.5%p ▲가입기간 내 청년재무상담 이수 0.2%p ▲우대형 가입요건에 해당 0.5%p 등의 금리요건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급여 및 가맹점대금 이체 0.3%p ▲신한카드 사용 실적 충족 0.2%p ▲신한은행 증권연계계좌로 증권 거래 시 0.5%p ▲6개월 내 신한은행 정기예금·적금 거래가 없거나 청년도약계좌와 연계가입 시 0.3%p ▲당행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력 1%p ▲가입기간 내 청년재무상담 이수 0.2%p ▲우대형 가입요건에 해당 0.5%p 등의 조건을 요구한다.

하나은행은 ▲급여 및 가맹점대금 이체 1.2%p ▲하나은행 카드 결제실적 충족 0.6%p ▲1년 이내 하나은행 내 정기예금·적금을 미보유 0.5%p ▲가입기간 내 청년재무상담 이수 0.2%p ▲우대형 가입요건에 해당 0.5%p 등을 우대금리 요건으로 내 걸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스마트폰 가격 인상 현실로... 수익성 개선·구매심리 위축 '기대반 우려반'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상승 여파 디스플레이업체 긍정적 작용 시각도

올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여파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차기 스마트폰 가격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프리미엄 모델 중심의 판매 확대가 예상되면서 디스플레이 업체에는 오히려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IT팁스터 란즈크 등은 아시아와 유럽 주요 유통 채널들이 오는 7월 말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8'과 '갤럭시 Z 플립8' 시리즈의 인상된 출고가를 사실상 확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 아이폰, 삼성전자 갤럭시 등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의 제품. /카운터포인트리서치

공개된 예상 가격에 따르면 갤럭시 Z 플립8의 시작 가격은 1200달러(약 185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화면 비율을 확대한 새로운 폼팩터의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8은 약 1800달러(약 277만원),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는 2100달

러(약 323만원)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는 한정판 성격의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제외하고 삼성전자가 출시한 역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비싼 제품이 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18' 시리즈의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최상위 모델인 아이폰18 프로의 가격이 1299달러(약 200만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따른다.

스마트폰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제기되지만, 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판매 비중 확대가 오히려 디스플레이 업체들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스

마트폰 가격 인상이 단순한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프로 모델 중심의 제품 믹스를 강화하면서 패널 평균판매가격(ASP)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마트폰 패널 시장에서는 OLED 가운데서도 고부가제품인 LTPO(저온다결정 실리콘산화물) 패널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와이즈기아리포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LTPO OLED 시장 규모는 지난해 54억 9000만달러에서 오는 2035년 15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애플과 삼성전자, 사오미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프리미엄 모델에 LTPO 패널 채택을 늘리면서 관련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LTPO 패널 시장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주요 공급사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LG디스플레이의 실적 회복 여부는 애플의 아이폰 전략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이 아이폰18 시리즈의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일반 모델 출시를 늦추고 프로·프로맥스·폴더블 모델을 우선 선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하반기 고사양 모델 중심의 애플 향 OLED 패널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가격 인상 자체는 수요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플래그십 모델 판매가 확대될 경우 고사양 OLED 패널 공급 비중이 높은 국내 업체들의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하반기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흥행 여부가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실적 개선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글로벌 혁신 제약사로”... 렉라자·매출 2조·후속신약 ‘삼박자’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대한민국 대표 제약기업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백년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글로벌 혁신 신약 강자로서의 도약을 선포했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글로벌 상업화가 본격적 궤도에 오른 가운데, 본업의 견조한 실적 성장과 ‘포스트 렉라자’를 내놓기 위한 차세대 파이프라인까지 삼박자가 맞물리며 제2의 도약기를 맞이했다.

21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지난 20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구(舊) 사옥을 재단장한 복합문화공간 ‘윌로우 하우스’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국내 상장 기업으로는 11번째로 창립 100주년을 달성한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날 조옥제 유한양행 대표의 기념사를 통해 “유한양행이 100년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진(Progress)’과 ‘신의(Integrity)’라는 두 가지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혁신 제약사로서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Great Yuhan, Global Yuhan’의 여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미래 비전을 천명했다.

지난해 매출 2조1056억 기록
영업익 57.2%·순익 116.7% ↑
약품 성장·해외 API 수주 견인
오송·화성 증설로 생산기반 확대

◆창립 100년, 미래 100년... “신뢰 위에 약속의 100년 더한다”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유한양행의 발걸음은 힘차다. 특히 신약에 중점을 둔 본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사업 등 부가가치 창출로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별도 기준, 전년 대비 4.8% 성장한 2조1056억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며 2조원대 매출 시대에 완전히 안착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57.2% 급증했다. 당기 순이익 역시 116.7% 증가한 2095억원을 올려 내실과 외형 성장을 모두 챙겼다.

이러한 호실적은 주력 사업인 약품사업의 견조한 성장과 해외 원료의약품(API) 사업의 수주 폭발이 견인했다.

지난해 약품사업으로 1조3904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오창공장의 경구용 고형제 가동률은 100%에 달했다. 실적 성장세를 바탕으로 유한양행은 사업 확장 기반을 다진다. 오송 공장을 건설 중이며 오는 2028년 하반기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송공장은 약 7억정 수준의 경구용 고형제를 비롯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해외 원료의약품(API)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해당 사업 매출은 386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1% 커졌다.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 수혜로 한국이 안정적인 생산기지로 대체되면서,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 등으로부터 수주가 늘어난 성과다.

유한양행은 향후 수주에도 선제적으로



조옥제 유한양행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대방동 윌로우하우스에서 열린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응하며 올해 3월 유한화학 화성공장 HC동 증설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2028년 상반기 상업화 생산이 목표이며 기존 HA동 23만7350리터, HB동 29만5300리터 등에서 HC동 29만2000리터로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유한화학 안성공장 A·B·F·G동(총 46만2700리터)까지 더하면 100만리터가 넘는 규모다.

렉라자, 美·유럽 등 주요국 허가 SC제형 개발로 투약 편의성 강화 항암·대사·면역 후보물질 임상 뉴코 통해 기술이전·M&A 추진

◆글로벌 관문 넘은 ‘렉라자’... 제형 개발 등으로 경쟁력 제고

유한양행의 핵심 자산인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렉라자는 2024년 8월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후 2025년 유럽(EMA), 캐나다(HC), 일본(PMDA), 중국(NMPA) 등 글로벌 주요 규제기관의 관문을 모두 통과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했다.

렉라자는 해외 영도 추가는 물론, 우수한 효능도 지속 입증하고 있다.

임상 3상 MARIPOSA 최신 생존 데이터에 따르면, 렉라자(레이저티닙) 병용군의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은 아직 미도달 상태로 집계됐다. 항암 임상에서 미도달은 약효가 뛰어나 투여 환자의 과반수 이상이 여전히 생존해 있어 통계적 중간값을 산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렉라자(레이저티닙) 병용군의 mOS는 48개월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대조군 대비 최소 12개월 이상 연장된 값이다. 대조군인 오시메티닙 단독군은 36.7개월을 기록했다.

또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피하주사(SC) 제형 병용요법도 개발되고 있다. 피하주사(SC) 제형은 약효는 유지하면서도 기존 정맥주사(IV) 제형 대비 투약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국내외 의약품 시장에서 SC제형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병용약물의 신제형은 곧 렉라자의 시장 지배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성장동력 ‘포스트 렉라자’... 뉴코(NewCo) 전략으로 개발 극대화

유한양행은 렉라자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파이프라인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학, 대사질환, 면역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기술수출을 노리는 유망 물질들이 대거 임상 단계에

진입했다.

우선 중앙·항암 부문의 ‘YH32367’, ‘YH42946’ 등은 표적 항암제 후보물질이다. YH32367은 이중항체 기반 면역항암제로, 중앙 표적과 면역 활성을 동시에 구현한다. YH42946은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계열의 항암제로 암 세포 증식과 전이

에 관여하는 HER2 및 EGFR 유전자 변이를 표적한다. 고품양을 적응증으로 한 ‘YH32364’ 역시 임상 1상 용량증량이 진행되고 있다.

비항암 분야에서는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 치료제 ‘YH25724’,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 등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며 대형 신약으로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유한양행은 이러한 반대향 신약개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 특수목적법인 뉴코를 운영한다. 각 파이프라인별 전략적 투자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상업화를 이뤄낸다는 복안이다. 끝까지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주요 운영 주도권은 유한양행이 보유하며 향후 기술이전, 인수합병, 기업공개 등 다양한 출구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가장 좋은 약으로 국민과 인류에 기여하겠다는 유일한 박사의 창업 정신이 지난 100년을 이끌었다”며

“다음 100년에도 혁신적인 국산 신약을 지속 개발하고 글로벌 협력을 계속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한양행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유한양행의 성장을 일구고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이 전달되며 ‘백년 기업’이 지닌 상생과 신뢰의 가치를 한층 더했다. 150명의 장기근속자들은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아울러 행사가 열린 윌로우하우스는 지난 1962년부터 35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무엇보다 창립 100주년을 계기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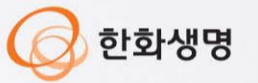
전날인 19일에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유한양행 관계사, 파트너사, 투자사 등 내외빈을 초청한 대규모 기념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관리의 차이, 결과의 차이 한화생명 퇴직연금

한화생명의 금융 노하우로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퇴직연금도 역시, 한화생명입니다



퇴직연금 [DB, DC, IRP] 왜 한화생명일까요?

- ☑ 자산관리 컨설팅 전담 조직 운영
- ☑ 연금 전문가의 1:1 맞춤 상담
- ☑ 은퇴·세금·부동산 통합 설계
- ☑ 퇴직연금 상담문의 1588-6309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한화생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B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6-02601호 (2026-03-26 ~ 2027-03-25)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6-03-021

www.hanwhalife.com

방산·에너지 아우르는 '종합 해양 솔루션' 진화 조선호황에 돛 올린다



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III Batch-2 잠수함.

⑧ 한화오션



한화오션이 글로벌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발판으로 '종합 해양 솔루션'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등 고부가가치 상선이 실적을 견인하는 가운데 특수선과 에너지플랜트(EPU), 해상풍력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한화오션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2099억원, 영업이익 441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78% 증가하며 한화오션 출범 이후 분기 최대치를 달성했다.

1분기 매출 3.2조, 영업이익 4411억
상선·특수선 등 수주잔고 약 48조
美 LNG 확대·VLCC 공급망 다변화

사실상 KDDX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60조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 경쟁 필리핀조선소 등과 美 해군사업 확대 무인수상정·유무인 복합전력 육성

수주잔고도 안정적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한화오션의 수주잔고는 348억6000만달러, 약 48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상선 부문이 260억20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수선 및 기타 52억5000만달러, 에너지플랜트 35억9000만달러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연간 연결기준 매출 12조7835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수년치 일감을 확보한 셈이다.

향후 상선 시장 전망도 우호적이다. 한화오션은 미국 LNG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LNG 운반선 수요, 노후 스팀터빈 LNG선 교체 수요가 중장기 발주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VLCC 역시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운송거리 증가와 노후선 교체 수요가 시장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잠수함·함정·MRO...글로벌 해양방산 핵심축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글로벌 군비 지출은 지난 2024년 2조7200억달러에서 지난해 2조8870억달러로 늘며 11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남중국해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해상 안보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화오션은 전투함과 중형 잠수함 분야에서 접근 가능한

글로벌 잠재 시장 규모를 1780억달러(약 240조원)로 보고 있다. 현재 약 3조원 수준인 특수선 매출을 2030년대 4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국내의 수주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총 사업비 7조4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상 선정됐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선도함 1척과 상세설계 사업 규모는 약 8821억원이다.

해외에서는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을 두고 독일 TKMS와 경쟁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최근 국내 잠수함 최초로 3000톤급 도산안장호함의 1만4000km 태평양 횡단을 성공시키며 장거리 작전 능력을 입증했다.

한화오션은 필리핀조선소와 VARD, 한화디펜스 USA를 중심으로 미국 해군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 사업을 수주했다. 필리핀조선소는 대형 도크와 폴리앗 크레인을 갖췄고 미 해군 시설과 인접해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행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무인수상정(MUSV)과 유무인 복합전력 분야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자율운항과 유인 전력연동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해양 방산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선 사업은 여전히 선행 투자 단계에 있다는 평가다. KDDX 본계약 체결과 미 해군 MRO 사업의 추가 물량 반영 여부가 향후 고정부 부담 완화와 수익성 개선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FLNG에서 해상풍력까지...에너지 인프라 영토 확장

시장조사업체 프레시턴스 리서치는 글로벌 해양 석유·가스 장비 시장이 지난해 950억3000만달러에서 오는 2035년 1425억7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클락리서치도 2026~2027년 글로벌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 신조 발주가 총 18건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심해 가스전 개발 확대에 따라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등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오션은 과거 해양플랜트 사업의 손실 경험을 교훈 삼아 저가 수주 경쟁 대신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024년 싱가포르 해양플랜트 상부구조물 전문기업 다이나맥(Dyna-Mac)을 인수하며 설계·제작·통합 수행 역량을 강화했다. 이를

싱가포르 다이나맥 기업 인수로 2년마다 FPSO 3기씩 건조 계획
풍력사업 인수해 밸류체인 구축도

순수 암모니아 가스터빈 개발 착수
한화엔진, 노르웨이 SEAM 인수
실내 용접 자동화율 100% 목표

기반으로 오는 2027년 이후 FPSO를 2년마다 3기씩 건조하는 안정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도 차세대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다. 한화오션은 한화 건설부문의 풍력 사업을 인수해 개발부터 EPC(설계·조달·시공), 발전·운영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현재 현대건설과 함께 총사업비 2조6400억원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390MW) EPC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하부구조물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상 공사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총사업비 4조1000억원 규모의 480MW급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자회사 오션이앤이(아이)를 통해 해상풍력설치선(WTIV) 운영 역량까지 확보하며 해상풍력 밸류체인 내재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무탄소 추진·디지털 전환...미래 조선 경쟁력 확보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EU의 'Fit for 55', EU ETS(탄

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으로 해운업의 환경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 발전용 연료이자 수소 운반체로 주목받는 암모니아의 해상 물동량은 지난해 2023년 800만톤에서 오는 2035년 4000만톤으로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오션은 무탄소 선박 선점을 위해 한화피워시스템, 베이커휴즈와 세계 최초 순수 암모니아 가스터빈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기존 암모니아 엔진이 일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혼소 방식인 반면, 순수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파일럿 오일 없이 엔진 착화가 가능해 완전한 탄소중립 구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2020년대 후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를 차원의 친환경 선박 밸류체인 구축도 진행 중이다. 자회사 한화엔진은 지난해 노르웨이 전기추진·전력자동화 기업 SEAM 인수에 2908억원을 투자했다.

생산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오션은 스마트야드 프로젝트인 '십야드 4.0'에 오는 2030년까지 3000억원을 투자해 현재 67% 수준인 실내 용접 자동화율을 100%로 높일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미국 필리핀조선소에도 적용해 생산성과 건조 효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도 디지털 트윈과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지난해 2월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200번째 LNG운반선.



한화오션이 개발한 암모니아 가스터빈 추진 LNG운반선 조감도.

/한화오션

답이 있다면 지구 반대편까지



SK 선대회장 | 최 종 현

- 1979 | 2차 오일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산 5만 배럴 원유 공급 확보
- 1984 | 무자원 산유국 첫 발견, 북예멘 마리브 광구 유전 발견
- 1998 | 아시아 지역 새로운 도전, 베트남 15-1광구 석유 개발 시작
- 2010 | 페루 LNG 가스생산, 수송, 수출 수직계열화 완성
- 2014 | 안정적인 LNG 확보를 위한 미국 우드포드 가스전 지분 투자
- 2018 | 독자 운영 및 자체 기술로 남중국해 17/03 광구 원유 발견 성공
- 2022 | 동남아 자원 거점 확대, 말레이시아 SK427 광구 운영권 확보
- 2025 | 자원 영토 확장, 인도네시아 3개 탐사 광구 지분 확보
- 2026 | 호주 바로사 가스전 LNG 첫 도입, 20년간 안정적 공급

작은 가능성에도
수천 미터를 파 내려가고
먼 미래를 위한 일일지라도
주저 없이 바다를 건넌습니다

지난 6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의 답을 찾아갑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국조특위 가동... 선관위 개혁·원포인트 개헌 쟁점 부상

내일 첫회의 열고 중앙선관위 보고 발생경위, 물량 산정 과정 등 점검 정치권 선관위 개혁 논의도 본격화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회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된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여야는 주요 증인·참고인과 자료 제출 등의 안건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기관증인으로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부르고, 노태약 전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지난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3지방선거 홍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등은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조특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이뤄지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통해 투표용지 부

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파헤칠 예정이다.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에 따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도 규명할 계획이다. 선거 관리 인력 운용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선관위 조직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혁안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축소 지침이나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선관위 기강 해이와 방안 운영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선거관리 개혁방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비상임직의 상임직 전환과 현재 1명뿐인 상임위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여권에서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방안 등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하는 법제도를 만드는 게 위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여야 간 일치가 되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특검을 도입해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

다. 필요하면 정부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께서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에 이어 김 총리도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이번 선관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 특히 청년이나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다른 기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게 됐다는 것을 반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면서 “차제에, 얘기가 나온 김에 끝을 봐야 하고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와 야와 국민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끝을 보자’라는 마음을 정해 놓고 이 건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민주당 전대 시동... 정청래 출마 결단 임박

연임 도전 최대 변수 ‘지선 책임론’ 권리당원 비중 높은 호남 표심 주목 출마시 김민석·송영길 3파전 구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내로 차기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출마를 결심하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의를 표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원내에 복귀한 송영길 의원 간 3파전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4일 최고위원회·26일 당무위원회를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한다. 전준위원장은 4인 의원 중에서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선거

관리위원회(선관위)도 곧 발족한다.

전준위와 선관위가 설치되면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된다. 전당대회는 권역별 순회 경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은 이번 7월 16~17일에 받을 방침이다.

정 대표 연임 도전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지방선거 책임론’이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16곳 광역단체장 선거구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탈환을 목표로 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 대표의 선거 지휘가 부족했고 연임에 도전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비당권파 사이에서 나왔다.

관건은 호남 표심이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 내에서 권리당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정 대표는 지난

해 8월 박찬대 당시 당대표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권리당 원으로부터 약 66%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호남 지역의 비토 정세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 대표는 지난 19일 6·3지방선거 당선인 등을 격려하기 위해 전북을 찾으며 호남 민심을 살폈다. 다만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도 호남 표심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광주·전남 특히 전라북도에서 호남의 민심이 소명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보고 싶다”며 “제가 광주에서 지금 세 후보 중에 1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 그걸 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보유세 강화 예고에 여야 공방 격화

>> 1면 ‘서울 아파트값’서 계속

보유세를 강화해야 ‘기대 수익’에 대한 심리가 열어진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세제 개편을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선택한 이유로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현금 흐름을 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자신의 SNS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미국은 주마다 보유세가 다르며 뉴욕의 경우 1%,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에는 최고 0.6%라는 내용

이다. 모두 한국의 실효세율(약 0.15%)보다 높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7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물론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타깃은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투기 수요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청와대와 정부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증세 본색’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최보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은 안 짓고, 매물은 막아 놓고, 가격이 오르면 불로소득이라 낙인 찍고, 마지막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꺼낸다”고 평가했다.

/서예진 기자

신임 해수부 차관에 남재현 본부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 남재현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사진)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단행 소식을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남재현 신임 차관은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항만 전문가로 업무 추진력을 두루 갖추고,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정통 관료”라고 소개했다. 이어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청와대는 21일 참모진 인사 관련 발표를 했다. 왼쪽부터 신임 홍보소통수석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민정수석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사회수석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 국가안보실 1차장 강건작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 위원, 국가안보실 3차장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 /뉴시스

이, 청와대 홍보·민정·사회수석 전면 교체

국정 2년차... 수석 인사 단행 성기홍 홍보수석·한찬식 민정수석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겸 우석대 교양대 객원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수석급인 국가안보실 1차장과 3차장도 교체됐다. 집권 2년차에 맞춰 사실상 ‘중폭’에 가까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 것이라 평가다.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5명의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있게 구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인사 기초를 설명했다.

성기홍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연합뉴스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연합뉴스TV 보도국장,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법무부 인권국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동부지검장, 서울지검장 등을 역임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예진 기자

김경자 신임 사회수석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ESG코리아 이사와 우석대 교양대학 객원교수를 지냈다.

국가안보실의 강건작 신임 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육사45기로 임관해 육군 28보병사단장,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및 국방개혁비서관, 육군 제6군단장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송기호 안보실 3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거쳤다. 최근까지 국가안보실 제3차장실 경제안보비서관이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 규모에 대해 현재 공식인 AI미래기획수석을 포함해 총 6명이 교체되는 것이라며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2분의 1에 가까운 숫자”라면서 “청와대 수석(규모)에서는 소폭이라 말하기는 어렵고, 중폭 이상의 청와대 인사 개편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열정 가득한 청년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청년의 더 많은 가능성을 위해
도전이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도록

하나가 청년들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대상 인턴십 지원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 연계 청년 일경험 제공

실무형 금융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

· 하나 청년 금융인재 양성 프로젝트 운영

지역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

· 전국 30개 대학 연계 지역 청년 창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해외 증시·공장 투자 증가... '경상흑자=원화강세' 공식 깼다

역대 두번째 '경상수지 흑자'에도 1500원대 환율 '원화약세' 지속 "시장 대응만으로 환율안정 한계 투자소득 환율 등 함께 이뤄져야"



Chat GPT가 생성한 원화 약세 이미지.

지난 4월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인 282억9000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5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의 원화 환전 효과는 해외 증권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에 일부 상쇄되고, 해외에서 발생한 투자소득도 현재에 재투자되면서 경상흑자가 원화 강세로 이어지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를 1527.0원에 마감했다.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82억9000만달러 흑자로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통상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려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흑자와 고환율이 공존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말 정책금리 전망을 3월 3.4%에서 6월 3.8%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전망을 2.7%에서 3.6%로 올린 것이 단기적인 원화 약세 요인으로 꼽힌다. 또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 배경에는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와 해외 투자소득의 제한적인 국내 환류도 자리하고 있다.

◆ 해외 투자가 환율 약세 요인

한은의 '해외투자와 투자소득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는 1403억달러로 2024년 670억달러의 두 배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같은 기간 3.6%에서 7.5%로 뛰어 일본의 2.3%를 웃돌았다.

연기금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기업, 개인 등이 해외 주식과 채권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한다. 수출기업이 벌여

들인 달러가 국내로 들어와도 해외자산 매입을 위한 달러 수요가 이를 흡수하면 외환시장의 순달러 공급 효과와 원화 강세 압력은 약해진다. 수출기업이 달러를 외화예금으로 보유하거나 해외 투자와 원자재 결제에 사용해도 원화 환전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다.

4월 경상수지와 연간 해외 증권투자는 기간과 항목이 다른 만큼 일대일로 상쇄되는 수치는 아니다. 다만 경상수지 통계상 흑자와 국내 현물환시장에 실제 공급되는 달러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 모형에서는 해외투자가 평균 수준보다 약 3% 늘어나는 충격이 원·달러 환율을 약 0.7%포인트(p)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 해외에서 번 이익도 현지에

해외자산에서 이자와 배당을 벌여도 모두 국내 외환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이익을 본사에 배당하지 않고 현지 공장 증설 등에 다시 투자하면 통계상 투자소득으로 잡히지만 국내로 실제 유입되는 달러는 없다.

한국의 재투자수익수입 비중은 2010년 이후 평균 40%로 독일 28%, 대만 18%보다 높고 일본 46%에 근접했다. 한은 분석에서는 투자소득이 평균보다 약 8% 늘면 환율을 약 0.4%p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재투자 비중이 1%p 상승하면 환율을 약 0.4%p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해외에서 번 소득이 늘어도 현지에 남으면 외환공급 효과가 제한된다는 의미다.

해외투자 확대는 투자소득을 늘리고 외화유동성과 대외지급능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이를 억제하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고 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환헤지를 유도하는 한편 국내 생산성과 투자수익률을 높여 자금의 해외 쏠림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보고서는 "중장기적인 환율 안정은 외환시장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소득의 환류 기반 확충과 국내 성장잠재력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특정임원 업무 집중... 책무구조도 이해 부족

금감원,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완료 내달 2일부터 여전사·저축은행에 도입

여전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특정 임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무구조도에 대한 업권의 세부적인 이해 부족으로 보완 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2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기 앞서 대형 여전사 및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 내용을 분석 후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52개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이 참여했다. 전체 회사 중 91%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 2024년 하반기 이후 역대 최대 참여율을 기록했다.

사전 진단 결과, 책무의 중층적 배분 등 그간 나타났던 미흡 사항은 일부 감소했으나 여전히 보완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경영관리 임원에게 과도한 책무가 편중된 점이 보완 사항으로 꼽혔다. 경영관리 임원에게 관련 책무뿐만 아니라 금융 영업 책무나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책무까지 배분된 사례가 포착됐다.

다수 임원이 유사한 상품·서비스 책무를 분담하면서 임원별 책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일부 임원의 책무 세부 내용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제도 이해 부족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됐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내용이 개념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기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임원이 책무와 관련해 운영·결정하거나 관리·감독해야 하는 구체적인 책

임을 뜻하는 책무 세부 내용과 이를 위한 수단인 주요 관리의무 내용이 불명확하게 혼재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책무와 무관한 세부 내용, 관리의무를 기재하거나 다수 회사가 동어반복으로 관리의무 내용과 책무 세부 내용을 기재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표이사외의 이사회 의장 겸직 등 지난해 금융투자회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서 주요 미비점으로 안내한 내용 역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된 미흡한 점을 금융사에 안내하는 한편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 회사의 의견 청취 및 운영현황 점검 등을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 및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금융회사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소비자 안내 의무화

금감원, 알권리 강화... 행정지도 추진

보험회사가 보험금 심사 기준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안내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 안내 의무는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된다. 그간 보험회사는 대법원판결 등으로 보험금 심사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할 의무가 없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을 믿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이후 뒤늦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사실을 알

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금감원은 이를 막고자 소비자 안내의무를 신설했다. 보험회사는 대법원판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보건당국의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에 따라 심사 기준을 변경(이하, 중요한 심사 기준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심사 기준 변경이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경 안내 시에는 알람톡, 애플리케이션(앱) 등 최소 2개 이상의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 홈페이지 공시도 의무화됐다. 공시에는 중요한 심사 기준 변경의 근거 취지, 변경 내용, 적용 시점 및 연락처 등이 포함돼야 한다. 변경된 심사 기준은 소비자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후 적용해야 한다.

/안재선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CEO 금융보안 세미나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벅커스클럽에서 금융보안원과 함께 '저축은행 CEO 금융보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는 오하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외 저축은행 대표이사(CEO)들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저축은행 CEO가 알아야 할 금융보안 이슈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신 금융보안 정책과 보안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저축은행 업권의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서호진 보안연구부장이 최신 금융보안 정책 동향과 금융권 영향을 소개했다. 이어 김기철 침해대응부장이 금융권 보안 침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김성용 인공지능(AI)혁신부장이 금융권 AI 추진 현황과 보안 전략을 발표했다.

/안재선 기자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10조 추가

생산적금융 9.4조, 포용금융 6000억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 추진을 위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에 10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생산적금융에 9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6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상품도 추가 공급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19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주요 계열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를 점검했으며, 생산적금융에 9조4000억원, 포용금융에 6000억원 등 10조원을 추가 투입해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를 총 9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생산적금융 부문에서는 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5조7000억원, 내년 3조7000억원을 조기에 추가 공급한다. 특히 실물 경제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 및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우리금융그룹 CEO들이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금융

수출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6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상품을 추가 공급한다. 올해 포용금융 공급 목표도 1조2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까지 늘려 조기 지원에 나선다. 은행·카드·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는 1조10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해 금융안정망 역할을 확대하고, 장기연체 고객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체채권 소각도 확대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이번주 전국 10개 단지서 6200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GS건설 '북오산자이드포레' 등

6월 넷째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620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5375가구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팽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덕국제신도시수자원하우스',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자이드포레', 경남 양산시 물금읍 힐스테이트양산더스카이1·2단지 등에서 청약이 진행 중이다.

GS건설은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북오산자이드포레'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동, 전용면적

59~125㎡, 총 151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외곽 이동이 편리하고 수도권 1호선 세마역과 오산대역도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동탄일반산업단지 등의 기업이 가까이 자리해 직주근접 여건도 갖췄다. 단지 앞 내삼미1초교(가칭) 부지가 계획돼 있고, 필봉산과 오산천이 인접한다. 동탄신도시와 접하고 있어 다양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모텔하우스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 경남 김해시 신문동 '김해신문센트럴아이파크', 경북 경산시 중산동 '벤티힐즈W'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전자, 노조간 주도권 경쟁 격화 교섭단위 분리 등 경영 부담 커지나

초기업노조, 지난달 과반 지위 상실
단일화 이해관계 조정 등 과제 부상
업계 “전사 단위 교섭 어려워질 것”

삼성전자에서 전사를 대표하는 과반 노조가 최근 사라지면서 2027년 차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둘러싼 노조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였던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지부(초기업노조)는 지난달 조합원이 5만6000명대로 줄며 과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기점으로 조합원이 빠르게 이탈한 결과다.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려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삼성전지에는 전사를 대표하는 과반 노조가 없는 상태가 됐다.

과반 지위 상실로 초기업노조의 영향력도 약화됐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과반 노조 및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인정받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직접 지명하며 운영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과반 지위를 잃으면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근로자 대표로서 누리던 독점적 지위도 잃게

됐다. 초기업노조가 과반을 잃은 배경으로는 사업부 간 이해관계 차이가 꼽힌다. 올해 임금협약 과정에서 반도체 사업부 성과를 반영한 특별경영성급급 신설이 합의되면서 비반도체 사업부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졌다. 동행노조는 최근 강동·구미 수원 사업장에서 검은색 옷이나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는 단체행동을 벌이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같은 기간 다른 노조의 조합원 수도 빠르게 늘었다. 완제품(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조합원은 5월 초 2600명대에서 6월 19일 기준 2만6000명대로 증가했다. DX 부문 전체 직원 5만1717명의 절반을 넘어선 규모다. 동행노조는 DX 부문 내 과반 확보를 1차 목표로 달성했고 4만명 가입을 다음 목표로 제시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조합원도 같은 기간 2만1000명대로 늘었다.

노조 지형은 빠르게 재편됐지만 교섭 구도는 당장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 교섭 대표노조는 전삼노로 2024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그 지위가 2027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 사측의 공식 교섭 상대는 전삼노이며 다른 노조는 독자

적으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변곡점은 전삼노의 교섭대표 지위가 끝나는 2027년 2월이다. 이후 차기 임금·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노조 지형이 지금과 같다면 삼성전지는 과반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절차를 밟게 된다. DX 부문 전 직원이 한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전사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특정 노조가 단독 교섭권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중심의 초기업노조와 DX 중심의 동행노조, 전삼노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업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추진도 변수다. 최승호 위원장은 2027년 교섭에서 반도체(DS) 부문 교섭단위 분리를 노동위원회에 공식 요구하고 분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교섭단이 아닌 초기업노조 단독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부별 실적과 보상 체계 차이가 커진 만큼 과거처럼 전사 단위로 교섭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제네시스 스페셜 리버리가 적용된 GMR-001 #17(왼쪽) #19(오른쪽).

26일 ‘2026 부산모빌리티쇼’ 개막 현대차·BMW 등 차별화 모델 공개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 참가
현대차그룹 총 34대 차량 전시

2년 만에 열리는 ‘2026 부산모빌리티쇼’가 오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부산해운대 벅스코에서 개최된다. 부산모빌리티쇼는 서울모빌리티쇼(홀수해 개최)와 함께 국내 양대 모터쇼로 짝수 해에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현대자동차, 기아, BMW, 미니, BYD 등 주요 완성차 업체가 참가해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과 다양한 미래 전략을 선보일 방침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서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와 인공지능(AI) 기술 선점을 위한 완성차 업체들의 기술 경쟁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부산모빌리티쇼에서 총 34대의 차량을 전시한다.

우선 현대차는 국내 대표 준중형 세단 신형 아반떼(디올 뉴 아반떼)를 세계 최초 공개한다. 아반떼는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순위 3위를 기록했으며 북미에서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판매실적(약 14만8000대)을 기록했다. 완전변경 모델로 출시되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높은 차량이다. 현대차는 2040㎡(617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차량 8종, 12대를 선보인다. 부스는 자동차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을 경험하는 공간을 콘셉트로 마련한다.

기아는 2040㎡(617평) 규모 부스에서 PV5 기반 신규 모델 3종 등 총 18대의 차량을 공개한다. PV5 파생모델은 패신저 2-2-3, 패신저 프라임, 카고 하이루프 등이다. 외부와 협업한 PV5 어린이 통학차량, 아이스크림 트럭, 이동형 펌프업스 토어, 바이크 수송차, 모바일 뱅크, AI순찰차 등 6종의 차량도 전시된다.

세계적 내구 레이스인 르망 24시간 완

주에 성공한 제네시스는 GMR-001 하이퍼카 실차 디자인을 전시한다. 제네시스 마그마레이싱 소속 GMR-001 하이퍼카 #19 차량은 르망 24시간 완주에 성공한 바 있다.

처음 참가하는 중국 완성차 업체 BYD는 독자 하이브리드 기술인 ‘DM-i’를 국내 소비자에게 최초로 공개한다. BYD는 자체 친환경 기술인 DM(Dual Mode)을 개발해 2008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인 ‘F3DM’을 출시했다. BYD의 PHEV 차량은 현재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800만대 이상 판매됐으며 누적 주행거리도 300억km를 넘어서는 등 기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순수 전기차만으로 수입차 브랜드 최단 기간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하이브리드차 시장까지 무대를 넓히며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BMW코리아는 지난 18일 공식 출시한 중형 전기 SUV ‘더 뉴 BMW iX3’를 전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MINI는 전동화와 퍼포먼스 모델을 전시할 방침이다. 차봇모터스는 이번 부산모빌리티쇼에 총 625㎡ 규모의 대형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이네오스 그레나디아어 램 등 특화 브랜드도 참가해 정통 오프로더와 대형 픽업 트럭 등 차별화된 모델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정통 오프로더와 최고급 프리미엄 픽업트럭이라는 각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과 차별화된 헤리티지를 영남권 고객들에게 명확히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모빌리티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 차량과 고성능 전동화 기술,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등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단순한 주행거리 경쟁을 넘어 에너지 효율 등이 핵심 경쟁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두산에너지빌리티, 국내외 원전사업 순항

북미 가스터빈·중동 EPC 수주
국내 원전건설 움직임 본격화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북미 가스터빈과 중동 설계·조달·시공(EPC)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 성장 기대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국내 원전 시장 재개와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부지 선정이 맞물리면서 중장기 성장성도 부각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두산에너지빌리티의 발전설비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미국 데이터센터용 380MW급 가스터빈 7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지만 전력망 증설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워 전용 발전설비 수요가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가스터빈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는 분석도 나온다. 가스터빈은 석탄발전보다 탄소 배출 부담이 낮고 건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당장의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와 맞물려 가스터빈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두산에너지빌리티의 관련 수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중동 EPC 수주도 실적 성장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8400억원 규모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고 한국서부발전 컨소시엄과는 약 5300억원 규모의 오만 두쿰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중동 지역에서는 전후 복구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발전설비 수요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는 원전과 SMR 사업이 꼽힌다. 정부는 최근 총 2.8기기와 트(GW) 규모 대형 원전 2기의 건설 후보

지로 경북 영덕군을 선정했다. 0.7GW 규모의 국내 첫 SMR 건설 후보지는 부산 기장군으로 정했다. 대형 원전은 2037~2038년, SMR은 2035년 준공이 목표다.

국내에서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이 이뤄진 것은 2011년 이후 약 15년 만이다. SMR 부지가 정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 건설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원전 기자재 공급망을 갖춘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사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원전 핵심 주기기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에서 공급망 참여를 확대해왔다. 해외에서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사업에서 핵심 부품 공급을 맡았고, 미국 뉴스케일과 워·테라파워·엑스에너지, 영국 롤스로이스 SMR 프로젝트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르노코리아, 미래모빌리티 전략 공유

넥스트라이즈 2026

독자 개발 AI 에이전트 베타 버전 공개

르노코리아는 지난 18~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기술·스타트업 행사 넥스트라이즈 2026에서 독자 개발한 AI 에이전트 베타 버전을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전시장에서는 르노코리아 개발진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필라트에 탑재된 AI 오케스트레이터의 베타 버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차의 기능들을 통합해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르노코리아가 내년 공개할 예정인 소프트웨어중심차(SDV)의 모습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장에는 카카오



넥스트라이즈 2026 르노코리아 전시 부스.

/르노코리아

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스매시랩스, 발레오 등 파트너사 전시 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복합형 세탁건조기 제품군 확대

위시타워·위시콤보 신제품 출시

LG전자가 대용량·고효율·인공지능(AI)을 앞세운 세탁건조기 신제품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가전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 고객 수요가 커지고 있는 복합형 세탁건조기 제품군을 확대해 차별화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이달 중 국내 최대 용량을 갖춘 ‘LG 트롬 AI 오브제컬렉션 위시타워(이하 위시타워)’와 ‘LG 트롬 AI 오브제컬렉션 위시콤보(이하 위시콤보)’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라인업은 세탁과 건조 용량이 모두 25kg인 위시타워와 세탁과 건조 용량이 각각 25kg, 21kg

인 위시콤보다. 두 제품 모두 국내 최대 용량으로 겨울 이불과 같이 무거운 빨래도 손쉽게 세탁·건조할 수 있다.

신제품에는 LG전자가 60여 년간 축적해온 핵심 부품 기술력이 적용됐다. 세탁조를 정밀하게 움직이는 모터, 온도를 낮추거나 건조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컴프레서 등 주요 부품과 함께 AI 기능을 더해 보다 섬세한 세탁과 건조를 구현했다. 이를 통해 제품 본연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 편의성을 모두 끌어 올렸다. LG전자 핵심 기술 중 하나인 AI DD모터는 세탁물 재질과 오염도, 세탁량 등에 따라 6가지 모션 가운데 최적 모션으로 세탁·건조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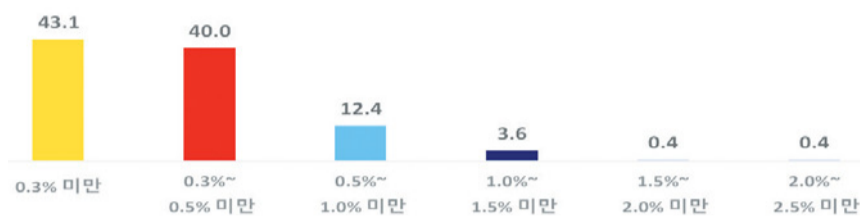
/차현정 기자 hyeon@

중소·소상공인 2면

소상공인 절반 “고용유지 걱정 최저임금 8500~9000원”

소공연, 전국 700명 대상 실태조사
현 최저임금 87% “부담 크다”
8500원이면 57.7% “추가 고용”
내년 최저임금 74.9% “인하” 요구

〈2027년 최저임금 인상 시, 걱정 수준〉



소상공인의 절반 가량은 고용유지를 위한 적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8500~9000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10곳 중 6곳 가량은 최저임금이 8500원 정도면 고용을 더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10곳 중 7곳은 내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이같은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가 5월 한 달간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해 2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우선 ‘고용 유지 가능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가장 많은 54.7%가 8500~9000원으로 답했다. 이외에 9000~9500

원은 22.5%, 8500원은 18.8%, 9500~1만원은 4%였다. 모든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아야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의 92.7%는 최저임금이 올라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이 추가로 가능한 최저임금 수준’은 57.7%가

8500원, 35.9%가 8500~9000원이라고 각각 답했다.

9000~9500원 사이는 6.4%에 그쳤다. 최저임금이 9500원 이하가 되어 고용을 더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의 최저임금에 대해 ‘부담이 크다’는 답변은 87%(매우 부담+부담)로 매우 높았다. ‘전혀 부담이 없다’는 답변은 제로(0)였다.

또 절반이 넘는 55%는 노동생산성 대비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74.9%가 ‘인하’를, 23.6%는 ‘동결’을 각각 원했다. ‘인상’이란 답변은 1.6%에 그쳤다.

인상해야한다면 적정 수준은 43.1%가 ‘0.3% 미만’이라고 답했다. ‘0.3~0.5% 미만’도 40%였다. 10곳 중 8곳은 내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을 ‘0.5% 미만’으로 희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1만원이 넘는 인건비까지 짊어져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등 정책적 보완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美 232조 관세 개편... 中企 10곳 중 6곳 “부속서 파악 못해”

중기중앙회, 수출 中企 600곳 조사
20.8% “개편 뒤 관세율 상승”
평균 인상 폭 16.2%포인트
76% “관세 부담에 채산성 악화”



지난 4월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아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시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개편안이 지난 4월 6일 시행된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자사의 수출 품목이 어느 부속서(Annex)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 개편안으로 5곳 중 1곳은 관세율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 악화를 우려하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대미 협상 강화 등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

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해 2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56.3%는 자사 수출 품목이 어느 부속서(Annex)에 해

당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수출 품목이 ‘부속서 II’(16.5%), ‘부속서 III’(11%), ‘부속서 I-A’(8.3%), ‘부속서 I-B’(7.8%) 순에 각각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 개편으로 관세율이 높아졌

다고 응답한 기업은 20.8%였다. 이들 기업의 평균 관세율 인상 폭은 개편 이전 대비 16.2%p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세율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대미 수출 전망에 대해선 부속서 분류별로 체감 영향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부속서 I-A’와 25%가 부과되는 ‘부속서 I-B’ 해당 기업은 각각 40.0%, 38.3%가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부속서 II(67.7%)와 III(42.4%)에선 ‘변화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부속서별로 관세 개편의 영향력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으로 ▲관세 부담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76.1%) ▲바이어의 가격·인도조건 등 계약 내용 변경 요구(37.3%) ▲거래 지연 및 취소 발생(25.4%) 순으로 많았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군이 단순 금속 합량만을 기준으로 부속서 I-A에 일괄 분류돼 고율 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품의 실질적인 가격 구조를 반영한 합리적인 부속서 재분류를 위해 대미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삼성, AI로 기기·의료 잇는 ‘커넥티드 케어’ LG엔솔, 글로벌 첫 배터리 특허 10만건

비바테크서 디지털 헬스비전 공개
헬스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젤스와 의료진·환자 실시간 연결



박현수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헬스 팀장이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2026’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스타트업-테크 박람회인 비바테크(Vivatech)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가전, 의료 플랫폼을 연결하는 건강관리 비전을 공개했다. 삼성 헬스를 중심으로 기기와 서비스를 연계한 ‘커넥티드 케어(Connected Care)’ 생태계를 앞세워 디지털 헬스 사업 확대에 나선 모습이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7일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에서 열린 ‘비바테크 2026’에 참가해 ‘더 건강한 내일로’의 초대를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했다. 올해 10번째인 비바테크는 유럽 최대 규모 스타트업-기술 행사로 165개국에서 20만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스타트업 1만5000여개와 전시업체 4500여곳이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AI 기술을 매개로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 워치, 삼성 헬스, 스마트싱스, 가전, TV를 연결해 집 안에서 끊임 없는 건강관리 경험을 제공하는 ‘커넥티드 케어’ 비전을 제시했다.

커넥티드 케어는 삼성전자의 통합 건강 플랫폼인 삼성 헬스를 중심으로 구현된다. 삼성 헬스는 수면, 활동, 식이, 마음

건강, 생체 징후 등 5개 영역에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전시관 내 ‘삼성 커넥티드 케어 에코시스템’ 존에서 삼성 헬스 7.0 업데이트를 통해 강화된 기능도 소개했다. 새 버전에는 심장 건강 점수(Heart Health Score), 수면 중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바이탈스(Vitals), 유산소 운동 부담을 측정하는 일일 심혈관 부하(Daily Cardio Load) 등이 포함됐다.

의료 플랫폼과의 연계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수 계약을 발표한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업체 젤스(Xealth)와 협력해 의료진과 환자를 연결하는 건강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등록 기준도 5만9000건 확보
지난해 R&D 1조3277억 투자
소재·셀·팩 전 영역 원천기술 축적

LG에너지솔루션이 30년 넘게 축적한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배터리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기준 글로벌 특허가 등록 기준 약 5만9000건, 출원 기준 10만 건을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전 세계 배터리 기업 가운데 글로벌 출원 특허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특허를 미래 성장동력이자 사업 경쟁력

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보고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온 점이 글로벌 특허 확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처음으로 연간 연구개발(R&D)비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277억원을 R&D에 투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소재와 전극 설계, 셀, 팩,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제조공정 등 배터리 전 영역에서 원천기술을 축적해왔다. 대표 특허로는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음극 더블 레이어 코팅(DLD), 탄소나노튜브(CNT) 선분산 기술 등이 꼽힌다.

로컬·수출 유망 소상공인 가린다

중기부, 22일부터 2주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한 로컬·수출 소상공인을 발굴한다.

중기부는 혁신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2026년 혁신 소상공인 통합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통합 오디션은

핵심 소재 분야에서도 고전압 전해질,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미드니켈 NCM(NCM523, 622), 실리콘 음극 등 주요 기술을 확보했다. 이러한 특허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특허 소송에서 권리 보호 역량을 입증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차세대 기술 확보도 병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위닝테크(이기는 기술)’ 전략을 바탕으로 각종 LMR(리튬망간리치) 배터리와 건식전극 등 미래 기술 분야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침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인 라이선스 체계 구축과 기술 교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컬기업을 선정해 역량진단, 컨설팅, 사업 모델 고도화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과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통합 오디션은 총 1만220개사가 지원해 약 1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심층평가를 통해 오디션 참가 기업 125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김승호 기자



풀스택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AI도 사람이 하기 나름”... SKT만의 ‘AX 리더십’ 제시

‘AX 스터디 데이’서 전략공유

AI 에이전트, 사내 구성원과 일해 AX, 전담조직 넘어 현장 적용해야 문제 정의, 위임 판단, 결과 검증으로 AX 2.0 진입... AI 기반 업무 재설계

전사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전환(AI)을 추진하는 SK텔레콤이 ‘AX 2.0’ 시대에 필요한 역량으로 AX 리더십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리더십 능력에서 나아가, 일의 위임을 통해 실제 업무 성과로 연결되는 개념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 T타워에서 진행된 ‘AX 스터디 데이’에서 이 같은 내용의 AX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김인수 SK텔레콤 AI보드 팀장은 “7개월 전까지만 해도 AI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AX를 추진하면서 실제 가치는 사람과 조직이 움직이는 방식에서 나온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AX 리더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변화는 기술에



19일 SK T타워에서 진행된 ‘AX 스터디 데이’에서 김인수 SKT AI Board 팀장이 AX 스토리를 발표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서 시작하지 않는다”며 “기술은 출발점일 수 있지만 사람이 직접 그 기술을 이용해 일할 때 변화가 생긴다”고도 했다.

앞서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가 사내 구성원과 함께 일하는 ‘AX 혁신 2.0’을 공개했다. 이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AX 혁신 1.0’과 달리 업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이날 김 팀장은 AX 1.0 단계에서 확인한 한계점을 설명했다. AI를 활용한 업무 성과는 사용량이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에서 나온다. 또 AX가 전담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고도 했

다. 실제 업무의 문제 상황을 가장 빨리 체감하는 곳은 현장이라는 이유에서다.

AX 전환을 위해 새롭게 제시한 핵심 역량은 AX 리더십이다. 이는 AI를 이해하는 ‘리더십’ 능력에서 나아가 직접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AX 리더십 요소로는 문제 정의력, 위임 판단력, 결과 검증력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AI가 처리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눠 AI가 수행할 일의 범위를 판단한다. 이후 AI가 만든 산출물이 적절한지 검증하고, 이를 다시 업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개인이 AX 리더십을 갖겠다고 곧바로 AI 네이티브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AI 적용과 업무 성과는 최고경영진의 명확한 방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SK텔레콤은 최근 AX 2.0에 진입했다. 이를 위해 먼저 AI 에이전트에 사번을 부여하고, 소속과 직무, 권한을 정해 입사부터 퇴사까지 구성원과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을 새로 짜는 ‘AX 샌드박스’도 도입했다. 관성적으로 해 온 업무를 처음부터 AI 기반으로 다시 설계하는 사내 실험이다. AX를 일상 업무 문화로 정착시키는 장치도 마련했다. 회사는 전 업무 영역에서 AI 전환을 촉진하는 ‘AX 카탈리스트’를 선정한다. 이들은 각 조직의 AX 성공 사례를 전파하고, 현장에서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촉매 역할을 맡는다.

기존 AI 전환 아이디어 공유 시스템은 ‘AX 라이브러리’에 통합한다. 조직의 시행착오와 성과를 전사 자산으로 축적한다.

현재 사내에는 AI 에이전트가 적용되고 있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에이닷 비즈 코워킹’ 베타 버전을 도입해 AI 활용 문턱을 낮췄다. 구성원이 자신의 업

무방식을 AI에 학습시키면, 개발 지식이 없어도 AI가 실행 계획 수립부터 코드 작성, 검증까지 수행한다.

구성원이 직접 AI를 만드는 흐름도 확산되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린 사내 해커톤 ‘2026 SKT AX 챌린지’ 참석자 중 절반은 비개발 조직 구성원이었다. AI가 일부 전문 직군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에 맞게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문화 확산과 과제 관리는 AX 전담 조직인 ‘AI 보드(Board)’가 맡는다. 전사 플랫폼 ‘AXMS’를 통해 AX 챌린지에서 발굴된 우수 과제를 정식 개발과 현장 적용으로 연결한다. 또 다른 출근 구성원이 아침 식사 시간에 AI로 업무 과제를 풀고 활용법을 나누는 ‘EBBAX CLUB’도 운영한다.

SK텔레콤은 앞으로 구성원 개인의 AI 활용 경험을 회사 전체의 일하는 방식 변화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이어지는 AX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조민선 기자

mjsjo@metroseoul.co.kr



metro

정보보호 투자액 340억으로 늘렸지만 비중은 ‘뒷걸음’

카카오, AI에 약 8220억 투자

지난해 313억 대비 27억 늘었지만 올해 공시 기준 4.1%로 비중 감소 AI 고도화·인프라 확충 투자 영향

카카오가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을 340억원대로 늘렸지만 인공지능(AI) 중심의 대규모 투자 확대 속에 전체 IT 투자 대비 보안 투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보안 투자 역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의 지난해 말 기

준 정보보호 투자액은 340억433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313억2705만원 대비 약 27억원 증가한 규모다.

투자액 자체는 늘었지만 전체 IT 투자에서 정보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카카오의 정보보호 투자 비율은 2023년 말 3.9%에서 2024년 말 4.3%까지 상승했으나 올해 공시 기준 2025년 말에는 4.1%로 내려왔다.

업계는 AI 투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AI 서비스 고도화와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며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실제 지난해 IT 부문 총투자액은 8219억8468만원으로 전년 7221억7357만원보다 약 1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4%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AI 확산이 오히려 보안 중

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평가한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서비스 안정성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AI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개인정보와 데이터 자산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AI 투자와 보안 투자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 보안 인력 92명 운영... 사용자 보호 체계 강화

카카오도 보안 거버넌스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의 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92명이다. 최고경영자 직속 조직 체계 아래 최고정보보호책임자

(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각각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업무연속성경영시스템(BCMS) 등 주요 인증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버그바운티 프로그램 운영, 카카오 비즈니스 로그인 2단계 인증 의무화, 사칭 방지 기능인 ‘페이스 시그널’ 도입 등 사용자 보호 정책도 확대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운영 전 과정에 걸쳐 보안 점검과 취약점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접근 통제와 실시간 보안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AI 시대 플랫폼 경쟁력, 결국은 신뢰

최근 플랫폼 업계에서는 AI 기술력 못

지않게 보안과 신뢰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AI 서비스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안 사고 발생 시 기업 이미지와 서비스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피싱, 딥페이크 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보안 책임도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이제 사용자들은 단순히 AI 기능이 좋은 서비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업인지도 함께 평가한다”며 “AI 경쟁 시대일수록 보안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사용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보보호 투자와 보안 체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양자기술 활용 보안전략 공개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 ‘E2E 퀀텀 시큐리티’ 전략 제시

퀀텀 키크·노드·볼트 ‘핵심 기술’

KT는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에서 미래 네트워크 보안 구상 ‘E2E 퀀텀 시큐리티’를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ICT 연구 성과와 혁신 기술을 공유하는 학술 발표회다.

KT 네트워크AI연구담당 정제민 상무는 17일 세션 발표를 통해 AI 기술 활용에 따른 기존 네트워크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AI 기술이 취약점 탐지와 공격 자동화에 활용되는 점과 자율적으로 진화하는 공격 방식에 주목했다.

양자 컴퓨팅 기술 발전으로 기존 공개

키 암호 체계의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커가 양자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탈취하면 이를 복호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KT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E2E 퀀텀 시큐리티’ 전략을 제시했다. 데이터 전송 경로와 네트워크 장비, AI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등 주요 인프라 전반에 양자 기술을 적용한다.

핵심 기술은 퀀텀 키크·노드·볼트 등 세 가지다. 고객과 통신망 사이의 데이터 전송 구간을 보호하고, 네트워크 장비 및 운영 구간의 취약점과 이상 징후를 탐지·보호한다. 데이터의 생성부터 저장·활용·삭제까지 생애 주기도 포함한다.

이 밖에 KT 특별 세션을 통해 통신망 운영 관련 보안 문제도 다뤘다. 5G-LTE 이동통신 환경의 보안 취약점과 무선 공



KT 네트워크AI연구담당 정제민 상무가 19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 KT 특별 세션에서 미래 네트워크 보안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KT

격 기법, 단말-무선 프로토콜·서비스 구성 과정의 보안 문제,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체계, 통신 사업자의 AI 시대 보안 전략 등을 논의했다.

KT는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공격 대응 속도와 보안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오픈AI, 韓서 챗GPT 광고 서비스 시험운영

오늘 AI

구독 모델 넘어 새로운 수익원 확보

오픈AI가 한국에서 챗GPT 광고 서비스를 시험 운영한다. 생성형 AI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구독 모델을 넘어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나선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 19일부터 한국에서 챗GPT 광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 이어 한국으로 테스트 지역을 확대했다.

광고는 무료 이용자와 고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출된다. 반면 플러스, 프로,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에듀 이용자에게는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다.

오픈AI는 정신건강, 정치 등 민감한 주

제의 대화와 미성년자 이용자에게는 광고를 노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광고 숨김 기능과 개인화 광고 설정 여부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오픈AI는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광고주는 조회 수와 클릭 수 등 성과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광고 도입을 AI 기업들의 수익화 경쟁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에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광고가 구독 모델을 보완하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대표는 “광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 없이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일본도 경계한 MBK... 홈플러스 사태로 신뢰도 '시험대'

메리츠 "실질적인 자금 투입 없어" 입장문 내고 MBK파트너스 정조준 H 정부, H 기업 인수 시도에 제동 사모펀드 책임경영 문제 '수면위'



ChatGPT로 생성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회생 절차·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논란' 관련 이미지.

홈플러스 회생을 둘러싸고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 그룹의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사모펀드가 실패한 투자에 무한 책임은 과하다"라는 동정론도 없지 않다. 그러나 "남의 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 매각으로 배를 불린 뒤, 본업 경쟁력 저하로 실적이 나빠지면 나 몰라라 하는 '먹튀 경영'의 전형"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MBK를 향한 책임론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투자 기업들의 탐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추가 공개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MBK 회장과 MBK파트너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19일 메리츠금융은 "긴급한 운영 자금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 대한 긴급대출 시 부실경영 책임자들에게 대한 보증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회생 가능성을 자신한다면 지급보증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은 1000억원 규모 긴급운영 자금(DIP) 금융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김회장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며, MBK가 추가 지원 여력이 없다고 대응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꼬집었다. 메리츠금융은 MBK

파트너스가 스스로를 동북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PEF)로 소개해 왔으며, 운용자산(AUM)은 약 325억달러(약 5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창업자인 김 회장에 대해서도 포브스가 집계한 2026년 한국 부자 순위 2위에 오를 정도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추정 자산은 99억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MBK는 2025년말 기준 대표 4개 펀드(3, 4, 5, 6호)에서 지난 10여년간 총 4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메리츠금융은 "MBK는 해당 펀드 운용을 통해 약 3억달러의 관리보수와 약 5억달러의 성과보수 등 총 8억2000만달러, 약 1조2300억원 규모의 보수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MBK가 2조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MBK가 직접 거액의 손실을 부담한 것처럼 시장을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리츠금융은 MBK가 주장하는 4000억원 지원금 대부분이 지급보증에 불과하며, 회생개시 이후 실제 현금 투입은 김회장의 400억원 증여뿐이라고 주장했다. 4000억원 중 2000억원은 회생절차 신청

전 홈플러스가 증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보증이며, 1차 긴급운영자금 DIP 600억원과 2차 DIP 1000억원 역시 MBK가 직접 현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보증을 제공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태로 PEF가 '먹튀 자본'의 불명예를 안은 것은 업계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PEF 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투자 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PEF 업계가 '몬스타 사태' 이후 투기자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20년간 쌓아온 신뢰의 공든 탑이 무너졌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초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간담회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은 지난 20년간 기업 구조개선과 성장기업 발굴·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도 "최근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투자자 이익이 침해되면서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투자 실패 시 손실이 기업과 사회 전반으로 전가되고 운용사의 책임은 제한적인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

가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MBK가 홈플러스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사모펀드 특성상 투자금 회수(엑시트)가 최우선인 만큼 수익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유인은 크지 않다"며 "현재 국내 사업 비중을 줄이고 일본 시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에, 국내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경계한 MBK... 고려아연으로 번진 논란

논란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MBK는 최근 솔라스토, FICT, 알테미라홀딩스 등 일본 내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일본의 정밀공작기계 기업 마키노후리스 제작소(마키노밀링)에 대한 인수 작업도 시도했다. 한국에서는 줄어든 입지를 일본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마키노밀링 인수에 실패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외환 및 외국무역법(FEFTA)을 근거로 MBK파트너스의 마키노밀링에 대한 공개매수(TOB)와 관련해 중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마사키 요시히사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소셜커뮤니케이션국 본부장은 한국경제인협회 행사 초빙특강을 통해 "행동주의 펀드의 부정적인 측면은 기본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중장기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국가 안보나 공익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무분별한 경영 개입에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연 이후 이어진 자리에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마사키 본부장은 "고려아연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간산업이라면 정부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한국 정부가 MBK를 순수한 한국계 자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개입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사키 본부장은 그러면서 "MBK의 자금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시선도 비슷하다. 고려아연 노조는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연대 성명을 내고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시도를 비판했다. 홈플러스에서 나타난 구조조정과 점포 폐점이 고려아연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고려아연은 반도체 배터리 방산 공급망과 연결된 국가 전략 산업으로 평가받는 만큼 단순 경영권 분쟁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려아연 노조는 MBK를 '악탈적 사모펀드', '거대 투기자본'이라고 규정했다. 그들은 "거대 투기자본의 침탈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싸움은 단순한 기업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울산 경제의 미래, 한미 경제동맹의 존립과 노동과 산업의 동맹이 흔들리는 절박한 위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내몰린 점도 언급하면서 "10년 후 고려아연이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MBK의 마키노밀링 인수를 막은 것에 대해 언급하며 '악탈적 사모펀드 방지법'(일명 MBK 방지법)에 대한 입법을 촉구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 정부도 중국계 투자자들의 자국 희토류 기업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고자 중국계 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명령하는 등 주요국이 전략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NH證 연금자산 20조 돌파

4년간 연금자산 3배 이상 증가 확정기여형·IRP 자금 유입 확대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퇴직연금 시장의 무게중심이 적립금 규모 경쟁에서 수익률과 자산관리 역량 경쟁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NH투자증권의 연금자산이 20조원을 넘어섰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진 결과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한 연금자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가 직접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연금자산도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최근 4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NH투자증권은 연금계좌를 통한 투자 선택지를 넓히는 데 주력해왔다. 현재 연금계좌에서 900여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으며, 적립식 ETF 서비스와 AI 알고리즘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 고객을 위한 전용 상품도 운영

중이다. 회사는 이 같은 투자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객의 투자 성향과 은퇴 계획에 맞춘 연금 운용 환경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외 평가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NH투자증권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전체 사업자 종합평가 상위 10% 우수사업자와 증권업권 우수사업자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연금전문 상담조직인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가입부터 운용, 수령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는 '연금VIP팀'을 통해 연금 운용뿐 아니라 세무·상속·증여 관련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시장이 운용성과와 자산관리 경쟁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연금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국외매출·재고자산... 금감원 회계감독 강화

'중점심사 회계이슈' 발표

금융감독원은 21일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발표하고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충당부채의 인식·측정과 우발부채 공시를 내년도 중점 점검 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중점 점검 분야는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다. 금감원은 해외시장 접근 제한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수출기업의 회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외 거래의 인도조건(FOB 등)에 따른 수익 인식 시점이 적절인지, 실제 통제 이전 시점에 매출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해외 거래처의 신용위험 증가 여부를 반영해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적정하게 설정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의약품, 전자부품, 기계·장비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중점 심사 항목에 포함됐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의

가치 하락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낮아졌음에도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거나, 제품군 단위로 묶어 평가 손실을 축소하는 사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가운데 재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회계처리가 주요 점검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투자부동산 관련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별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대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관련 주석 공시를 누락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역시 주요 점검 대상이다. 사업환경 변화로 손실부담계약, 보증 의무, 소송 관련 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기업이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거나 우발부채 공시를 누락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허정윤 기자

스페이스X에 몰린 개미 순매수 규모 3조 '눈앞'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서학 개미)들이 우주기업 스페이스X 주식 순매수를 나흘째 이어갔다. 총 순매수 규모는 3조원에 육박했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개인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스페이스X 주식을 1억 3667만 달러(2095억원) 사들였다.

매수 금액은 1억 8247만 달러, 매도 금액은 4580만 달러에 달했다.

스페이스X 주가는 135달러에 상장 후 사흘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며 200달러를 넘었다가 17일에는 처음으로 하락(-4.95%)했다.

그러나 서학 개미들은 4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다만, 전날(6억 7012만 달러)보다 매수 규모는 줄어들었다. 이로써 개인들이 상장 후 4일간 사들인 스페이스X 주식 규모는 총 19억 4960만 달러(2조 9887억원)로 집계되며, 3조원에 육박했다.

이달 들어 미 주식 시장에서 서학 개미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2위 마블테크놀러지(3억 955만 달러)의 6배를 넘었다.

서학 개미들이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 종목 랭킹에서도 20위 인텔(20억 1389만 달러)을 바짝 추격했다. /신하은 기자

韓 자동차 ‘수출·내수·생산’ 삼중고… 산업·지역경제 ‘비상’

산업부 ‘지난달 자동차산업 동향’
수출액 58.3억弗… 전월비 5.9% ↓
내수판매·생산 각각 10.3%·8.2% ↓
해상운임 증가·美 관세 부과 영향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과 중국차 수출 감소, 미국의 관세 장벽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수출, 내수, 생산이 동시에 고꾸라지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완성차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철강, 석유화학, 부품 등 연관 산업 전반과 지역 고용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58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12만 7315대)와 생산(32만 9599대) 역시 각각 10.3%, 8.2% 줄어들며 완연한 하락세를 보였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현대차

올해 5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292억 4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누계 내수 판매는 1.0% 소폭 늘었으나, 생산은 2.3% 줄었다.

지역별로는 주력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의 타격이 컸다. 최대시장인 미국 수출액이 24억 4300만 달러로 2.9% 감소한 것을 비롯해 북미 전체가 1.0% 줄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 -6.5%, 기타 유럽

-13.7%, 아시아 -37.3%, 중동 -4.2%, 중남미 -3.6% 등 오세아니아(20.1%)와 아프리카(16.9%)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일제히 후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출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차츰 해상운임’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현지 생산 전환’을 꼽는다. 지난 12일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985.22를 기록했다. 중동 분쟁

본격화 전인 2월 27일(1333.11)과 비교하면 불과 수개월 만에 2배 이상 폭등한 수치다. 해상운임 상승은 수출 채산성 악화로 직결됐고, 결국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수출 물량을 조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장벽도 한국산 자동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5월 누적 대미 자동차 수출은 125억 3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생산 대신 미국 현지 공장 생산을 늘리면서 국내 수출 물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탓이다. 이러면서 올해 자동차 시장의 역성장 전망까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산업의 부진이 국내 제조·산업계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자동차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철강, 석화 등 후방 산업을 견인하는 파급력이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

당장 완성차 생산이 줄어들면 수천 개 부품 협력사들의 발주량이 감소해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 이미 건설 경기 침체로

후판과 철근 수요 부진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 역시 자동차용 강판 수요까지 줄어들면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 범퍼와 내장재 등의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화학 업계와 고무·유리·전장부품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생산 감소가 장기화되면 고용시장과 지방 경제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신규 채용 축소와 투자 지연은 물론,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특정 지역의 경제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철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세의 영향으로 자동차 업체가 출고 가격을 낮추어야 하므로 부품 업체들에 대한 단가 인하 요구가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품이든 완성차든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 방식 혁신이 요구되며, 안정적인 노사관계, 각종 생산 여건 등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대리점에 채무이행 의무 부담’ 행위 적발

공정위, 두산밥캣코리아 시정명령
대리점에 연대보증 입보 등 요구
소비자 대금 미지급 시 대리점 부담

지게차 등 건설·산업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두산밥캣코리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고 채권 미회수 위험을 전가하다가 규제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추가로 대리점의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토록 하고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요구했다.

또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미지급 대금을 부담토록 하고 미지급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본사가 짊어줘야 할 고객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고스란히 대리점에 떠넘긴 셈이다.

다만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대해 실제 담보를 실행하거나,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의 지

급을 실제 유보·상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산밥캣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대리점에게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 및 물상보증인 연대보증 제공 요구 행위를 중단했으며,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게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이행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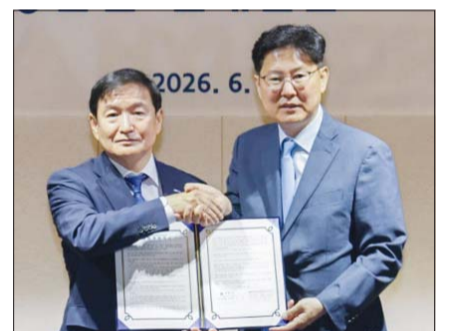
폐지 석탄화력발전소, 차세대 SMR로 전환

한국남동발전-현대건설 ‘맞손’
‘리트로핏’ 개발, 실증·사업화 모색

한국남동발전이 현대건설과 손잡고 단계적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를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남동발전은 지난 19일 현대건설 본사에서 이영기 안전기술부시장과 최영 현대건설 전무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발전 연계 SMR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력발전소 내 핵심 설비인 석탄보일러를 무탄소 전원인 SMR로 교체해 기존 발전 인프라를 재활용하는 ‘리트로핏(Retrofit)’ 기술 개발이 골자다. 리트로핏은 기존 노후 설비에 신기술을 접목해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전력량 등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이영기 남동발전 안전기술부시장(왼쪽)과 최영 현대건설 전무가 지난 19일 ‘석탄발전 연계 SMR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동발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은 대안으로 꼽힌다.

양사는 리트로핏방식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공동 검토하고, 향후 차세대 무탄소 전원 기반의 종합 에너지 플랜트 모델을 구체화해 실증 및 사업화 가능성까지 모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코트라·경남도, 북미 ‘에너지·전력’ 공략

美·캐나다, AI 확산에 전력 수요 급증
북미 수출 로드쇼에 中企 10개사 참여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북미 지역의 전력·에너지 인프라 확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지역 특화 기업들이 미국과 캐나다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경상남도는 지난 6월 15일부터 경남도 내 중소기업 10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경남 에너지·전력 기자재 북미 수출 로드쇼’를 미국 휴스턴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은 두산에너지빌리티,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협력사를 비롯해 전력·에너지 분야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번 로드쇼는 북미 시장의 전례 없는 수요를 겨냥해 지역 기업들의 수출을 직접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측에서는 발전소

용 크레인, 펌프 모듈, 방폭 케이블, 터빈 블레이드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에너지·전력 전문 기자재 및 설비 기업 10개사가 참가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설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력망 현대화와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7년부터 4년간 국가 전력망 현대화에만 19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망 투자가 이어지면서 관련 기자재 수요도 함께 치솟고 있다.

캐나다 정부 역시 국가 전력망을 현재의 두 배로 확충하고, 2050년까지 140~190GW 규모의 추가 저탄소 발전설비를 증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전을 포함한 발전, 송배전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의 협력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

발하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지난 6월 16일부터 이틀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에너지 종합 전시컨퍼런스 ‘에너지 프로젝트 엑스포(EPCSHOW)’에서는 한국관이 운영됐다. 올해 행사에는 벡텔(Bechtel), 플루오르(Fluor), GE 등 글로벌 에너지 공룡 기업들에서 7000여 명이 참가했다. 우리 기업 10개사는 코트라가 사전 발굴한 바이어를 포함해 한국관을 찾은 400여 개사와 밀도 높은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한수원도 현장에서 K-원전 기술을 적극 홍보하며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했다.

이어 6월 19일 캐나다 토론토 크라운플라자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Hatch, Candu Energy, EBMLaser, Westlund 등 현지 유력 에너지 전문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리 기업들은 사전 주선된 B2B 상담과 함께 캐나다 EPC 및 원전 산업 기회 설명회, 오픈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필리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필리핀
카마리네스수르 주와 협력체계 구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필리핀과 환경인프라 조성 및 온실가스 감축 부문 등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21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필리핀 카마리네스수르 주와 ‘신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 추진 ▲기존 매립장 사후관리 협력 ▲신규 매립장 조성 관련 기술협력 ▲폐기물 관리 체계개선 및 환경인프라 현대화 ▲신규 환경 분야 협력사업 발굴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필리핀 지방정부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양 기관은 카마리네스수르 주의 기존 매립장 사후관리 및 신규 매립장 건설 예정 사업에 대한 협력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 향후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져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측의 협력은 지난 5월 카마리네스수르 주지사 및 의회 의원들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장 방문 및 상호 협의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특히 공사가 보유한 폐기물 처리 및 매립장 운영·관리 기술력에 대해 현지 정부가 높은 관심을 보이며 협력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송병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지난 15일 필리핀 루스 마니고스 타완타완 차관보 등 환경당국 관계자를 만나 공사의 기술지원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16일에는 카마리네스수르 주 매립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매립장 운영 현황과 폐기물 반입 특성 등을 점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햐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민·관·공·산·학 힘 모은다... 경북도, 지역혁신 사업 시동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 본격 출범
3개 실증사업, 136억 사업비 확보
협력 통한 지역 혁신·소멸 대응

경북도가 지난 20일 청도상상마루에서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국 7개 시도 사회연대경제 지역지원조직과 컨소시엄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 7개 시도는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 이재혁 경북도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했다.

1부에서는 김종걸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장이 '지역문제해결, 새로운 협력의 시작'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7개 시도의 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한 지역문제 해결 실증 프로젝트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졌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주도 민관협



경북도가 지난 20일 청도상상마루에서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은 광역단위 민·관·공·산·학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 자원 발굴과 지역 의제 연계를 활성화해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별로 국비 8억원과 시·도비 6억원 등 총 14억원이 지원된다.

청도 소재 경북시민재단은 경북도개발공사, TS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과소셜비즈, 한동대 등 4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3개 실

증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시민재단은 전국 7개 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으로도 선정돼 성과관리, 컨설팅, 홍보 등을 수행하며 올해 8억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행사를 끝마친후후 참석자들은 청도읍의 (썬)시그널케어를 방문했다. 시그널케어는 동·식물성 부산물과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양어용·반려동물용 사료를 생산하는 자원순환 전문기업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도내 담 상류지역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사료 원료로 활

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올해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을 비롯한 3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3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민관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으로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창원시 '대마도의 날' 기념식 개최

창원시가 지난 19일 시청 시민홀에서 제22회 '대마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마도의 날'은 1419년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에서 출정한 6월 19일을 기념해 지정된 날이다.

이번 기념식은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대마도를 정벌한 이종무 장군의 장수 이씨 문중, 전북 장수군 관계자, 최윤덕 장군 대종회 종친, 박언중·박홍신 장군 밀양박씨 문중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대마도의 날' 조례는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당시 마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고창군 고창북분자와 수박축제 성황

전북 고창의 대표 여름축제인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제23회 고창북분자와 수박축제'가 지난 19일 선운산도립공원에서 열렸다.

고창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창 수박 품평회'가 열렸고 장아잡기, 물총싸움, 장애물 3종경기, 수박 빨리 먹기 대회, 플로깅&보물찾기, 수박 카방대회, 어린이 풀장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다채로운 체험·공연·판매 프로그램을 선보인 올해 축제에서는 그날막 확충과 카드결제 시스템 강화 등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도 갖췄다. /고창(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경남 "신규 원전 건설, 5조 경제효과"

130여년 만에 원전 건설 부지 확정
SMR 기술 경쟁력 선제 확보 발판

130여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부지가 확정되면서 국내 최대 원전 기자재 집적지인 경남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 17일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7기의 건설 후보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내 원전 기업들의 기자재 제작 참여 등을 통해 5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부지 선정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수력원자력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부지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형원전은 영덕, SMR은 기장을 각각 1순위로 결정했다. 신규 원전 부지가 정해진 것은 2012년 9월 이후 약 13년 9개월 만이다.

경남에는 두산에너지빌리티를 비롯해 원전 관련 중소기업 180여 개사가 밀집

해 있다. 원전 주기기, 단조품, 특수용접 등 핵심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어 신규 원전 3기 건설에 따른 주기기 제작과 기자재 공급에서 직접적 수주가 예상된다.

건설 이후에도 운영 기간 기자재 교체와 유지 보수 수요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장기적인 산업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도는 대형원전에서 SMR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일감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SMR 공급망 경쟁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SMR 혁신 제조 국산화 기술 개발, 원스톱 생산·검증 기반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SMR 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신규 원전 건설은 일감 공백을 메워 지역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버팀목인 동시에 SMR 기술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원전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제15차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 참석자들이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울란우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NEAR 회의서 도시 경쟁력 홍보

국제회의 유치전 나서

포항시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협력 무대에서 국제회의 개최 역량과 미래산업도시 비전을 알리며 글로벌 MICE 도시 도약에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울란우데에서 열린 제15차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에 참석해 포항국제전시간센터(POEX) 조성 현황과 MICE 산업 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아울러

차기 고위급 실무위원회와 총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도 펼쳤다.

이번 회의에는 9개국 91개 회원정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항시는 이상현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을 대표로 파견해 국제회의 개최 역량과 도시 경쟁력을 알렸다.

포항시는 회의 발표를 통해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AI 디지털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 비전을 소개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사천시, 해양 공공기관 추가 유치 박차

해양·우주항공 거점도시 기반 강화

사천시가 해양분야 공공기관 추가 유체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쌓은 유치 성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단계별 유치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에서 해양공공기관 유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방침이다.

남해안에 자리한 사천시는 해양도시이자 우주항공산업 거점도시로, 그동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유체에 공을 들여왔다. 2014년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를 유치했고, 2022년에는 사천해양경찰서 개서를 이끌어냈다. 지난해에는 국립공원 해양생태보전원을 유치했다.

해양생태보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해양 전담 관리 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사천시 실안동에 문을 열었다. 사천시와 국립공원공단이 2023년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사업비 225억원을 들여 청사를 지었다.

해당 기관은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조사와 연구, 해양생물 서식지 복원, 교육·체험 정책 개발 등을 맡으며 390급 연구관을 갖추고 전국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을 관리한다.

현재 사천에는 ▲사천해양경찰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해양출장소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사천사무소 등 해양 관련 기관이 들어서 있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본격 운영

계절근로자 정착 지원 강화

영양군이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을 시작하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본격화한다. 라오스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농번기 농가에 투입되면서 지역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군은 지난 18일 라오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1차 입국자 20명이 농업근로자 기숙사에 입소하면서 시설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입소한 신규 31 일원에 조성된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지상 3층 18호실 규모로 최대 65명을 수용할 수 있다. 냉난방 시설과 공용 주방, 샤워실, 세탁실, 다목적실 등을 갖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영양군은 지난해 남영양농협에 운영을 맡겨 라오스 계절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농번기 인력난 완화와 근로자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 농가의 호응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참여 인원과 운영 기간을 확대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입소한 근로자들은 지역 농가의 신청에 따라 하루 단위로 농작업에 투입된다. 입국 당일 마약검사와 통장 개설, 상해보험 가입 절차를 마쳤으며 근로자 준수 사항 교육과 함께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 안전교육도 받았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기장군 일광보건지소 오늘 개소

부산 기장군이 일광읍에 보건지소를 새로 열고 생활밀착형 공공보건으로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기장군은 22일 일광교육행복타운에 일광보건지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지상 2층, 연면적 1460㎡ 규모로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만성 질환관리실, 금연상담실, 모자보건실, 정신·치매상담실 등을 갖췄다.

보건지소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 예방·관리 상담, 물리치료, 금연 지원, 임신부·영유아 대상 모자보건 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중동전쟁 비상조치 정상화 수순 식품업계, 경영위기 극복 분수령

美-이란 종전 서명... 정부 규제완화
'원가 절감·공급망 안정' 효과 기대
일각선 조건부 조항에 신중론 제기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원재료와 포장재비, 물류비 폭등이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고사 위기에 몰렸던 국내 식품업계에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가 공식화되면서 최악으로 치닫던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식품업계의 경영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10일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롯데칠성음료, 풀무원식품 등 국내 주요 식품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공식 요청했다.

당시 기업들은 고유가·고환율 기조에 물류비 상승, 내수 부진이 겹쳐 하반기 경영환경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입을 모아 호소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격 서명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양국이 교전을 중단하고 핵심 해상 운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을 보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최근 1250만 배럴 규

모의 원유가 해협을 통과했다. 국내 입항 예정인 유조선 6척(약 1200만 배럴 수송 추정)도 해협 내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 수급이 정상화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도입했던 비상조치들을 이번 주말 중동 정세 변화에 맞춰 해제하는 수순에 들어간다. 정부의 발 빠른 규제 완화는 식품업계에 '원가 절감'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이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식품 포장재 가격 안정화와 조달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된다. 정부가 나프타 및 7대 기초유분의 수출 제한과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국내의 나프타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계의 목을 죄어왔던 페트병, 플라스틱 배달 용기, 포장 필름 등의 원가 부담이 직접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최근 나프타 가격은 톤당 700달러대로 내려왔으며 고점 대비 다소 진정됐고 수급 상황 역시 평시의 85~90%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의 비용 예측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기 종료와 원유 위기경보 하향 조정은 물류비 및 제조원가 절감으로 이어진다. 제품을 전국 각지와 해외로 실어 나르는 물류·운송비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식품 공

장을 가동하는 데 드는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비용도 줄어들어 기업들의 마진 구조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 물류가 정상화되면, 그동안 원가 압박에 막혀있던 K-푸드의 해외 시장 공략과 영토 확장에도 다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달간 원자재 수급과 해상 운송 일정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 경영 계획 수립조차 힘들었다"며 "이번 종전 합의와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했다."

극적인 종전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중론은 만만치 않다. 이번 종전 양해각서 중 '해상 통행 관련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자유 통행을 보장한다'는 조건부 조항을 두고 해석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종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원자재 가격과 물류 체계가 하루아침에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며 "이미 누적된 비용 부담이 워낙 큰 데다 실제 비용 구조가 안정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주얼리 전문관 모습.

/신세계

신세계百, 진주 등 주얼리 상품 경쟁력 강화

강남점 1층에 주얼리 전문관 오픈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주얼리 전문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9일 강남점 1층에 주얼리 전문관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3번 게이트 앞 주얼리 매장을 리뉴얼해 면적을 약 두 배로 확대했으며, 총 17개 브랜드 가운데 10개를 신규 브랜드로 구성했다.

새롭게 입점한 브랜드는 키린, 메시카, 아르투스 베르트랑, 리오레, 포멜라토, 아크레도, 스파넬리 킬콜린, 누니, 반조애, 프릿 등이다.

전문관에는 진주와 다이아몬드 주얼리 브랜드 타시기를 비롯해 컬러 젠스톤 주얼리 브랜드 포멜라토, 다이아몬드 주얼

리 브랜드 메시카, 맞춤형 웨딩밴드 브랜드 아크레도 등이 입점했다. 키린과 스피넬리 킬콜린 등 개성 있는 디자인의 브랜드도 함께 선보인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도 만나볼 수 있다. 자연의 질감을 디자인에 반영한 누니와 클래식한 감성의 프릿 등이 입점해 웨딩 주얼리부터 일상용 주얼리까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전문관 오픈을 기념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오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신세계 제휴카드(씨티·삼성·신한·하나·BC·바코)로 워치·주얼리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대별 최대 7%의 신백리워드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百, 24일 '더블러버스' 팝업 운영

내달 7일까지... 하트 컬렉션 5종 판매

롯데백화점이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서 K-아이웨어 브랜드 '더블러버스(DOUBLE LOVERS)' 팝업스토어를 연다.

더블러버스는 2015년 설립된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다. 패션과 아이웨어의 경계를 허문다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클래식한 디자인부터 개성 있는 디자인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를 갖춰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약 330종의 상품을 선보이는 플래그십스토어 규모로 운영된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고려해 선글라스 비중을 60%, 일반 안경 제품 비중을 40%로 구성했다. 행사기간 2개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월드몰 단독 상품도 마련했다. 인기 아이돌 그룹 '알파드라이브'이 착용해 관심을 모은 하트 컬렉션 5종을 단독 판매하며, 7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알파드라이브 멤버 포토카드 또는 브랜드 손거울을 한정 수량으로 증정한다.

/김서현 기자 seoh@

더벤처, 브랜드 캐릭터 '코비·옥춘' 공개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처가 고객 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탄생한 브랜드 캐릭터 '코비'와 '옥춘'을 공개하며 브랜드 친밀도 강화에 나섰다.

이번 캐릭터는 지난 4월 약 3주간 진행된 고객 참여형 공모전에서 총 658개 출품작 가운데 최종 선정된 작품이다. 브랜드 자산 형성 과정에 고객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코비'는 코끼리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로 '코끼리'와 '비타민'의 의미를 결합해 고객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전한다는 뜻



더벤처 브랜드 캐릭터

/더벤처

을 담았다. 문어를 모티브로 한 '옥춘'은 '옥토퍼스(Octopus)'의 '옥'과 봄을 뜻하는 '춘(春)'을 조합해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상징한다.

/신원선 기자

CU, '런앤쿨' 출시

CU가 러닝족을 겨냥한 기능성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며 러닝 특화 상품 확대에 나섰다.

CU는 러닝 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기획한 기능성 아이스크림 '런앤쿨'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제품은 B

CAA(필수 아미노산) 1100mg과 타우린 850mg을 함유했으며, 휴대와 취식이 편리한 튜브 형태로 제작됐다. 라임맛과 자몽맛 두 종류로 출시되며 이달 30일까지 2+1 행사도 진행한다.

CU는 앞으로 스포츠 브랜드 협업과 전용 상품을 확대하며 러닝 생태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편의점, 월드컵 거리응원 수혜... 일매출 꺾춤

광화문일대 점포 중심 매출 큰 폭 증가
업계, 할인·이벤트 등 대대적 프로모션

2026 글로벌 축구대회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열린 지난 6월 19일, 거리 응원 인파가 몰린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편의점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른 오전 10시에 경기가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야외 응원에 나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주요 편의점 브랜드 모두 특수를 누렸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들은 경기 당일 거리 응원객과 나들이 수요가 몰리면서 광화문 일대 점포를 중심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U는 광화문 광장에 모인 1만여 응원객의 영향으로 인근 10여 개 점포의 매출이 전일 대비 3.8배 급증했다. CU는 냉장 집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음료, 간편식, 스낵 재고를 평소보다 3배 이상, 치킨 인기 품목 재고를 최대 5배 이상 확대하며 수요 폭증에 대응했다.

기온이 32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속에 하절기 상품 수요가 몰리면서 얼음(332.5%), 생수(301.0%), 아이스드링크(266.6%), 아이스크림(178.8%) 매출이 전일 대비 대폭 증가했다. 주류에서는 하이볼이 514.3% 늘어나며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고, 맥주(234.1%), 와인(220.8%), 소주(174.4%)도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간편식인 삼각김밥(165.8%), 샌드위치(102.3%), 김밥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2026 글로벌 축구대회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열린 19일, 거리응원이 펼쳐진 광화문 편의점의 매출이 크게 뛰었다. /BGF리테일

(101.5%)을 비롯해 즉석 치킨(255.1%), 마른 인주류(190.1%), 스낵류(177.4%)의 수요도 높았으며, 돗자리(303.3%), 물티슈(198.4%), 보조배터리(104.5%) 같은 야외 용품도 불타나게 팔렸다.

이마트24는 응원 인파 집중을 예상하고 광화문 인근 점포의 생수와 맥주 발주량을 평소보다 150% 늘리는 한편 매장 외부에 추가 POS를 설치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그 결과 경기 당일 광화문 인근 점포의 매출이 전일 대비 최대 38% 늘어났다.

상품군별 전일 대비 매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수산·농산·축산 상품이 포함된 안주류가 350%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고, 젤리(194%), 과자(146%), 라면(89%), 빵(63%), 김밥(58%), 삼각김밥

(5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류와 음료 역시 컵얼음(149%), 맥주(143%), 생수(76%), 파우치음료(59%), 탄산·스포츠음료(58%) 순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야외 응원의 필수품인 휴대폰 충전기와 케이블 매출도 전일 대비 49% 늘어났다. 전년 동요일 대비로 보면 컵얼음 매출이 615% 급증했고, 휴대폰 충전기 및 케이블은 530%, 탄산·스포츠음료는 372%, 삼각김밥은 194%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응원 열기에 발맞추어 편의점 업계는 6월 한 달간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이어가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CU는 국산 및 수입 맥주를 과격적인 가격에 선보이며 대한민국 경기 전날과 당일에는 인기 맥주 9종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픽업 판매한다. 이와 함께 16종의 논란될 맥주 증정 행사,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최대 50% 할인, 대용량 즉석 조리 치킨인 자이언트 순살 치킨 할인 등 대국민 응원 프로모션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며 늘어나는 응원 고객들의 편의와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이마트24는 오는 30일까지 인기 맥주 번들 4종을 행사 결제수단으로 구매 시 균일가에 판매하며, 자체 안주 브랜드인 포차24 상품을 2개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3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앱을 통해 한국 대표팀의 경기 승부예측 이벤트를 진행하여 적중자들에게 총 300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한다.

/김서현 기자 seoh@

“폭음 대신 가볍게 한잔”... 주류시장 흔드는 믹솔로지 열풍

롯데 ‘순하리 진’ 8200만캔 판매
1분기 RTD 카테고리 매출 74% ↑
하이트, ‘호케츠 레몬’ 국내 출시

폭음 문화가 저물고 저도주·하이볼 중심의 음주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주류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소비자 취향에 맞는 술을 가볍게 즐기는 ‘믹솔로지(Mixology)’ 문화가 자리 잡자 식품업계는 RTD(Ready To Drink) 제품을 확대하고, 편의점과 대형마트는 차별화된 하이볼과 리큐어를 앞세워 새로운 수요 선점에 나서고 있다.

2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저도주와 RTD, 하이볼을 중심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변화하는 음주 문화에 대응하고 있다.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곳은 식품료 업체들이다. 롯데칠성음료의 RTD 주류



CU가 지난 17일 알코올 도수가 10도인 RTD 하이볼 ‘스트롱볼 레몬캔’을 출시했다. /BGF리테일

브랜드 ‘순하리 진’은 출시 5년 만에 누적 판매량 8200만 캔을 돌파하며 메가 브랜드로 성장했다. 인공 향료 대신 통과일을

초저온으로 15일간 침출하는 공법과 제로 슈거 전략, 도수의 세분화가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롯데칠성음료의 R

TD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4.4%나 성장했다.

하이트진로 역시 일본 시장 1위 RTD 브랜드인 기린그룹의 ‘호케츠 레몬’을 국내에 추가 출시하고 한강공원에 팝업스토어를 여는 등 과일 탄산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식음료업계의 활약속에서 편의점 업계는 한 단계 더 진화한 하이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이볼 매출이 매년 세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 중인 편의점 CU는 최근 ‘가성비 고도수’라는 새로운 흐름에 주목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보다 강한 만족감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알코올 도수 10도의 ‘스트롱볼 레몬 캔’을 출시했다. 수제맥주 대중화를 이끌었던 세븐브로이와 협업한 이 제품은 국내 RTD 하이볼 중 가장 높은 도수를 자랑하면서도, 제로슈거 레시피와 생레몬 착즙액을 활용해 부드러운 목넘김을 구현하

며 시장 선도에 나섰다.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보물병커 또한 하이볼 쪽을 겨냥해 일본 양조 명가의 과실 리큐르 ‘소노만마’ 3종을 단독 출시하며 시트러스 중심이던 시장의 스펙트럼을 살구, 딸 등으로 넓히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하이볼과 리큐르 시장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실제 최근의 음주 경향성 변화가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주류 실질 소비 지출이 작년 동기보다 9.0% 줄어들며 10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 월간 폭음률 중앙값 역시 33.8%로 2년 연속 하락해, 술을 다량으로 소비하기보다 집이나 가벼운 자리에서 저도주를 청량하게 즐기는 문화가 대세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생건, 스타트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과학 연구 기반 뷰티·웰니스 기업 박차
협업 희망 스타트업 대상 설명회 성료

LG생활건강이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뷰티·웰니스 기업’이라는 새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LG생활건강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 오픈이노베이션 런칭데이’에 참석해 LG생활건강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 방향, 모집 분야 및 선발 기준, 기술 실증 및 사업화 검증 계획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LG생활건강은 스타트업과 협업해 브랜드 파워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우선 화장품부터 생활용품, 음료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해 양사 성장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또 자체 연구개발(R&D) 역량은 불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 오픈이노베이션 런칭데이’에서 LG생활건강이 스타트업 대상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LG생활건강

론, 13개 국가에서 해외 법인권과 영업권을 갖고 있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29일까지 협력 희망 기업을 모집하며 주요 모집 분야는 뷰티 테크, 인공지능(AI), 컨슈머 테크, 헬스케어 등이다. 소비자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서울경제진흥원(SBA)으로부터 1000만원

지원금을 받고, LG생활건강의 기술 실증 및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는다. 최종적으로 성과가 확인되면 전략적 협업 및 투자 검토로 이어진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LG생활건강의 브랜드 파워와 시장 접근성에 스타트업 특유의 속도와 창의성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중심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동아쏘시오그룹,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동아쏘시오그룹이 그룹 내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안전 경영을 강화한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본사에서 제3회 동아쏘시오그룹 안전보건협의체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체는 근골격계 재해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교육을 시작으로 그룹사 안전보건 관리 체계 현황을 공유했다. 중대재해 등 안전보건 전문 사내 변호사의 강의를 들으며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무 역량도 높였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해부터 그룹사 간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상, 하반기 각 1회씩 안전보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 명칭을 ‘디-월드(D-SHIELD)’로 명명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에스티팜, 비티젠, 옴마로지스, 동아오츠카, 동아에코팩, 아벤중합건설, 한국신동공업, 디에이인포메이션 등 그룹사 안전보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사람 우선 ▲예상 중심 ▲개방과 소통 ▲책임과 참여라는 4대 핵심 가치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보건, 동이의 건 강한 약속’이라는 미션과 ‘모두가 안심하는 사람 중심 안전환경 구축’이라는 비전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안전보건담당자들의 안전보건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현장 내 재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선양소주 한화와 야구장서 오크소맥 알린다

선양소주가 신제품 ‘선양 오크소맥’ 출시를 기념해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와 손잡고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선양소주는 6월 중 세 차례에 걸쳐 경기장에서 ‘선양 오크소맥’ 시음 행사를 열고, 제품을 비롯해 선양인·선양선양오크선양말차 등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음 고객에게는 응원 부채를, SNS 인증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미니 선풍기를 증정한다.

지난 19일 한화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에서는 조운래 선양소주 회장이 시구 에 나섰으며, ‘소주회사 회장님을 찾아라’ 등 현장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신원식 기자 tree6834@

CJ올리브영, 신상 브랜드 등용문 확대

모바일 앱에 ‘올영신상’ 마련

‘K뷰티’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CJ올리브영은 모바일 앱의 기능을 전격 확장해 잠재력 있는 신상 브랜드의 고속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디지털 인큐베이터’ 역할을 강화한다.

CJ올리브영은 자사 모바일 앱에 신상품 전용 구역 ‘올영신상’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올영신상은 우수한 신상품을 선보여 고객에게 최신 뷰티 유행을 제안하는 동시에 유망 신상 브랜드를 집중 조명한다.

실제로 지난 8~17일 사전 운영 기간 동안 올영신상에서 소개된 상품들은 실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당 신상품 매출은 지난달 동기 대비 35% 늘었다. 별도 공간을 통해 상품 출시 초기부터 소비자 주목을 받을 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영신상은 여러 특화 코너들로 구성됐다. ‘신상 리와인드’는 최근 3개월 내 출시된 상품 300여 개를 부문별로 구분해 보여준다. 신상 캘린더에서는 출시 예정 브랜드를 미리 볼 수 있다.

매월 4주차에는 신상품과 신규 입점 브랜드에 할인을 적용하는 행사도 열린다. 이달에는 22일부터 5일간 진행되고 해당 기간에는 할인 쿠폰, 추가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영신상”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곳이자 브랜드에게는 신상품을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큐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K뷰티·웰니스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지난 17일 열린 ‘2026년 제1차 AI신약개발자문위원회’에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왼쪽에서 일곱 번째)과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협, ‘AI신약개발자문위’ 가동

생태계 구축 등 자문·토론 진행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실제 연구에 적용하는 등 국산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파르나스 호텔에서 ‘2026년 제1차 AI신약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활용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자문과 토론이 이뤄졌다.

또 첨단 기술 도입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했다. 교육생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수요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교육 사업의 경우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최신 AI 모델 기반의 실습 중심 교육과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문위원들은 “AI 신약개발로 성과를 창출하려면 AI 예측 결과를 실험으로 검증하고 다시 학습에 활용하는 ‘휴먼 인 더 루프’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기업과 제약·바이오기업, 출연 연구기관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창업상담 | 1644-0622



으뜸스시
Sushi Saikō

고객이 먼저
찾는 스시,
창업자가
다시 보는 브랜드

6/24 (수) 36호점,
으뜸스시 부산서면점 오픈!



2,200원
균일가

가성비 & 가심비
모두 만족



100가지
이상 메뉴

남녀노소, 가족 모두
만족하는 메뉴 구성



당일 작업 및
당일 판매

참치·활어 중심의
신선한 메뉴



서울 및 전국
창업

자동화 시스템으로
초보 창업자도 가능



애경산업, 24년 연속 무쟁의 달성

애경산업이 상생과 소통의 노사 문화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24년 연속 무쟁의'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애경산업 본사에서 노동조합과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양 측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애경산업



GS리테일, 소비자교육 콘텐츠 공모전 시상

GS리테일이 후원하고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KOINCE)가 주관한 '2026 소비자교육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9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후원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알고리즘 시대, 새롭게 정의되는 소비자권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GS리테일



보령암학술상, 유방암 연구 권위자 박연희 교수

보령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암 퇴치 연구에 헌신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보령은 한국암연구재단과 함께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 건희홀에서 '제25회 보령암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박연희 교수는 2008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및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20여 년간 유방암 분야에서 임상 진료와 연구 활동을 펼쳤다. /보령



우리금융그룹, 국방부와 '우리 히어로' 확대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군 장병 및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방부와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리금융 미래재단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공헌사업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을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확대 및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먼저, 우리금융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향후 3년간 총 30억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영웅 예우와 복지 증진에 앞장선다. /우리금융그룹

인사 ◆조선일보 △노설위원 최재혁 △정치부장 황대진 △콘텐츠앤미디어전략팀장 겸 미래기획부장 박건형 △스피셜팀장 강영수

부음 ▲이정연씨 별세, 김영숙(밀양시 산림행정담당)씨 모친상 = 20일 오후 5시,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823(삼문동) 밀양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22일 오전 7시, 장지 밀양화장장. 055-356-9411

금융위, 국민 체감 성과 낸 직원 3명에 1800만원 포상

제2회 '금융위인상' 수상자 발표
김기태 서기관, 성장펀드 안착 견인 박은경 사무관, 원스톱 구제망 구축 한성운 주무관, 매매분석체계 개발

금융위원회가 국민이 체감 가능한 우수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포상하기 위해 '제2회 금융위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직원 3명에게 금융위원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제2회 금융위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성과를 낸 소속 직원 3명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총 1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우수성과에는 ▲국민성장펀드 설계 및 집행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가상자산 불법공정거래 매매분석 시스템 구축 등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포상 대상자는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추천과 내부 직원 추천 등을 통해 모집했다. 특히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성과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포상 대상자 3명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1등에 선정된 김기태 서기관과 2등에 선정된 박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금융위인상에 선정된 김기태 국민성장펀드총괄과 서기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경 사무관은 대국민 추천을 통해 포상 대상자로 접수됐다.

금상(포상금 1000만원)에는 김기태 국민성장펀드총괄과 서기관이 선정됐다. 김 서기관은 국민성장펀드의 조기 안착을 견인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출범 5개월 만에 12조5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는 등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김 서기관은 '첨단산업 생태계 기여방안'을 통해 스퀘어업, M&A지원, 지역전용펀드 등

'실패경험도 자산이 되는' 운용사 선정 기준도 제시했다.

은상(포상금 500만원)에는 박은경가계금융과 사무관이 선정됐다. 박 사무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불법추심 중단,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피해구제까지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 상담 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처리 절차가 상이해 피해자의 구제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웠지만, 박 사무관은 전 기관 공통 매뉴얼을 마련하고 협

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동상(포상금 300만원)은 한성운 가상자산과 주무관이 선정됐다. 한 주무관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초기 예산과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상자산 매매분석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직원도 조사업무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약 9억원 상당의 시스템 개발 예산 및 매년 1억원 이상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7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인 혐의자를 적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성과도 거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파격 성과에 대한 포상을 통해 도전하는 공무원이 늘고, 도전하는 공무원이 늘수록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며 "포상이 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금융위원회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체감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코웨이, '청정학교 교실숲 8호' 조성

서울 내발산초 19개 학급 대상 멸종위기 식물 494그루 전달 임직원 봉사단, 환경교육 진행

코웨이가 서울 강서구 내발산초등학교에 '코웨이 청정학교 교실숲 제8호'를 조성했다.

21일 코웨이에 따르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코웨이 청정학교 교실숲 프로젝트'는 도심 속 자연·생태 공간이 부족한 학교에 학생들이 식물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반려 식물을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 감수성과 생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친환경 ESG 활동이다.

코웨이는 임직원 자원봉사단과 함께 내발산초교 19개 학급에 '파초일엽', '아라우카리아' 등 멸종위기 공기정화

식물 총 494그루를 전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과 임직원 봉사단은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 투명 페트병으로 제작된 화분에 식물을 옮겨 심었다. 또한 임직원 봉사자 전원이 환경교육에 보조교사로 참여해 학생들이 반려식물의 생태적 가치와 올바른 관리 방법을 배우며 환경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코웨이는 2022년 시작한 '청정학교 교실숲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전국 8개 초등학교에 총 3611그루의 멸종위기 식물을 기부했다. 또한 교실숲에 기부한 식물 수만큼 멸종위기 식물을 별도로 식재해 향후 이를 숲으로 옮겨 심는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도 펼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솔그룹, 대학생 AI 숏폼 공모전 개최

생성형 AI로 제품·기술 재해석 총상금 1400만원·공채 가산점

한솔그룹이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AI 숏폼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21일 한솔그룹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일상속 한솔그룹의 제품·기술·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일상 생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솔그룹의 다양한 사업과 기술을 소재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외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참가자는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제작한 숏폼 영상을 유튜브 또는 인스

타그램에 올린 뒤 오는 8월2일까지 지원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총 상금은 1400만원으로 ▲대상(1팀) 500만원 ▲최우수상(2팀) 각 300만원 ▲우수상(3팀)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향후 한솔그룹 공채 지원 시 서류전형 가산점도 부여한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한솔그룹의 다양한 사업과 기술을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가진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솔그룹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aT, 파리서 K-수산식품 매력 알렸다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K-엑스포 해조류·김스낵·전복 시식·쿠키쇼

한국산 수산식품의 프랑스 시장 수출이 최근 크게 늘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이러한 수출 확대와 현지 소비자들의 '건강+미식' 흐름, 양국 간 수교 140주년 등에 발맞춰, 해양수산부와 함께 파리에서 박람회 열었다.

21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6~18일(현지시간) 기간 파리에서 '2026 K-엑스포 : K-컬처의 모든 것' 박람회가 열렸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K-콘텐츠를 중심으로 연안 산업의 동반 진출과 수출 성과 창출을 목표로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제품과 김스낵, 지속 전복 등 건강, 편의성을 담은 다양한 한국 수산식품이



이달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6 K-엑스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전시됐다. 이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김부각, 해초 샐러드, 홍게살 샌드위치 등을 시식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현지에서 한·불 퓨전 요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주현선 조리장이 펼친 쿠키쇼도 인기를 끌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마사회, 경마 건전화·이용자 보호 강화

제7기 사감위, 첫 현장행보 과몰입 진단·AI 불법도박 대응

한국마사회가 건전한 경마 이용문화 조성을 비롯해 이용자 보호 강화, 말산업 육성 정책 등에 대한 방침을 재확인 했다. 마사회는 지난 19일 경기 과천시 한국마사회에서 열린 제7기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196차 전체회의에 이 같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제7기 사감위는 사행산업 분야 첫 현장 행보로 한국마사회를 찾아, 경마 건전화 사업 추진현황과 이용자 보호, 경마 중독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점검했다. 사감위 위원들은 보고 이후 경마 관람시설과 승용마사현장을 둘러보고, 마사회의 건전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감위는 특히 관람시설 내 가족친화 공간인 '놀라운지'와 이용자의 실명구내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전자카드센터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와 함께 사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여가 선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데이터기반 과몰입 위험 진단체계 고도화 ▲AI 기반 불법도박 대응 강화 ▲건전한 여가문화공간 조성 ▲청소년 중독예방 활동 확대 등이 다뤄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e-Topia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kec.kea.kr

SETIC 2026

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2026. 6. 24(수) - 26(금)

호텔 농심 (부산시 동래구)

멈추지 않는 **기술**,
확장되는 에너지의 **물결**



‘여의도떡방’, ‘모방 가수’ 운명 가른 기준은?



박 상 오 변호사
콘텐츠 법률 산책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시설(혹은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문제된다. 애초에 상품표지나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령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상품표지는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를 의미한다.

영업표지는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포함된다. 이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이 2019년 개정될 때에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타인의 성명 등은 단순히 개인이나 회사를 식별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의 기능(즉, 출처표시기능)을 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법원은 모방 가수가 다른 가수의 이름과 외양(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른 스타일)을 사용해 나이트 클럽 등에서 모방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립싱크(lip-sync)로 공연해 문제된 사안에서, 가수의 성명은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가수의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동 등은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상품의 형태가 상품표지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해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갖고 있고, 일반수요자가 한 번 보고 특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출처표시기능을 가진 상품표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가 문제된 사안에서 '여의도'라는 부분은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를 식별하는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떡방'이라는 부분도 떡을 제조·판매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 또는 관용문구에 불과하여 여기에도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데다가, '여의도떡방'에는 여의도에 소재하는 떡방을 지칭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으므로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 그 자체만으로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법원은 최근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캐릭터(character)에 대해서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돼 있어야만 이를 상품표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제대로 보호하고 의도치 않게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침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그 첫 걸음으로서 각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위 내용은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여러 법리들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를 명확히 알아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무법인 바른

포용금융의 역설



기지 수첩
안 재 선 (금융부)

“실제로 금융사에 돈 빌리고 안 갚으면서 외제차 빌려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다. 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서도 꼬박꼬박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도 많습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포용 금융의 시각지대다. 포용 금융이란 이름 아래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엉뚱한 이득까지 감싸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채무자 보호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성실 상환자와 비성실 상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고 본다. 장기 채무 탕감이나 채권추심 규제 강화가 필요한 측면은 분명하나, 의도적으로 채무자를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포용 금융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야 할지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과정에서 건전성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출 심사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준의 합리성 문제도 제기된다. 포용 금융으로 채무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채권추심 현장에서는 각종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추심 업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정상적인 채권 회수 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추심 업무의 경우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시간대를 벗어나 추심을 못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부업에서도 드라마에나 나올 법하게

추심을 강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매입채권추심 허가제를 둘러싼 불만도 나온다. 또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취지만 내 걸 것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되 성실 상환자와 비성실 상환자를 선별해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세부 기준이 특히 필요하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이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기준 마련 뿐이다.

/wotjs4187@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2일 (음 5월 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http://www.fortunetory.com)



48년생 예상되는 위험에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60년생** 건강이 많이 악화됩니다. **72년생** 돈을 좀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4년생** 종합진단을 한번 받아 보세요.



49년생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1년생**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73년생** 선배에게 대들지 말고 예의를 갖추세요. **85년생** 자신의 취치를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50년생 경쟁하지 마세요. **62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74년생**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세요. **86년생** 싸움을 할 수 있으나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1년생 과거를 반성하고 내일을 대비하세요. **63년생**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75년생** 자만하면 좋지 않습니다. **87년생** 마음을 크게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2년생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64년생** 안정된 자세로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세요. **76년생** 운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88년생** 자신이 생각한 바를 밀고 나가세요.



53년생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65년생** 이성과의 이별수가 예상됩니다. **77년생**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89년생** 옛 동창들과 어울려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54년생 강한 고집은 흉합니다. **66년생** 주변을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8년생** 이성운은 좋지만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90년생**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55년생 칼을 조심하세요. **67년생** 오늘은 불안정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79년생** 물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91년생** 업무에 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56년생 생활 컨디션이 저조합니다. **68년생** 골치를 앓던 문제가 우연히 해결됩니다. **80년생** 사전 연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92년생** 진득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57년생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길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김한운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81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93년생** 유쾌한 하루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58년생 재능과 지식을 널리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70년생** 실속을 취하세요. **82년생**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94년생** 오늘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도 다음을 기약



59년생 귀하의 본분을 잊지 마세요. **71년생** 활동을 줄이고 안정을 취하세요. **83년생** 금전, 이성문제, 모두 우려할 것입니다. **95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김상회의四季

양기 강한 단오

일 년 중 가장 강렬한 에너지가 응집되는 날, 단오가 바로 자연의 에너지가 응집되는 날이다. 음력으로 5월 5일이고 우리 민족의 4대 명절이다. 올해는 양력으로 6월 19일이 단오다. 단오에는 숫자 5(五)와 십이지신의 말을 상징하는 오(午)가 만나면서 오화(午火)의 기운이 중첩된다. 오행으로 불에 해당하며 방위는 남쪽, 계절로는 만물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시기로 하지와 맞물리는 시기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는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이 가장 긴 때로, 양기가 가득 차오르는 정점의 시기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처럼 양기가 가장성한 날을 택해 그 뜨거운 기운으로 액운을 물리치고자 했다. 단오날에 양기를 다루는 풍습이 많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단오날에는 창포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다. 창포는 생명력이 강하고 향도 강한 식물이다.

화 기운이 지나치면 사된 기운이 들어 오기 쉬운데, 향기와 양기가 강한 창포로 나쁜 기운을 씻어낼 수 있다고 여겼다. 단오에 익모초와 쑥을 채취하는 풍습도 강한 양기와 관련이 크다. 양기가 절정인 시기에 채취하는 익모초와 쑥은 강한 효능을 가졌고 이즈음에 채취한 약초는 민가에서 일 년 내내 사용했는데 자연의 기운으로 몸을 돌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쑥은 오래전부터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식물로 여겨졌다. 익모초 또한 여성 건강에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다. 단오에는 붉은색 글씨로 부적을 써서 붙이는 풍습도 있었다. 명리학에서 오화를 상징하는 색은 붉은색이다. 양기가 강한 붉은색으로 어둡고 습한 음기를 제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요즘도 단오 전후에 상담을 청하고 부적을 쓰는데 붉은색 부적으로 주변의 나쁜 기운과 액운을 막아보려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옆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6		4	7
	8	5	2	9	
1					
	4		7		6 3
		1	8		
7 6		9		8	
					9
	2	9	6	3	
9	8		4		5

		1	4	7	
	4				3
6		5	9		4
		9 4	7 2		
5					9
	6 9	5 8			
1		3	2		6
	6				1
	2	7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드의 월드퍼즐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1	9	7	2	8	6
8	2	9	1	6	5	7
6	7	2	9	8	1	5
2	8	9	6	7	1	9
7	2	6	8	9	1	5
5	9	1	9	2	6	7
9	7	8	6	2	7	9
1	6	8	7	9	8	9
2	9	7	1	8	9	6

5	8	9	9	1	2	6	7
2	1	6	7	9	8	9	2
9	2	7	6	8	8	9	1
2	7	8	9	6	9	1	2
6	9	8	8	1	2	7	9
1	9	2	2	9	7	6	8
7	2	1	6	8	9	2	9
8	8	9	1	2	2	9	7
9	6	2	2	7	9	1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3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4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의사보다 대기업 안정적 취업”... ‘반도체계약학과’ 인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공개 기준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98점 ‘최고’ 지방권 의대 평균보다 0.8점 웃돌아

〈2026 자연계 최상위권 정시 입시결과〉

No	구분	국수탐백분위 70%컷
1	경인권 의대	99.0
2	서울권 의대	98.8
3	지방권 의대	97.2
4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계약	96.2
5	서울대 자연	95.8

/종로학원

0점 낮지만,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서울대 자연계 일반학과 평균 95.8점보다는 0.4점 높은 수준이다.

대학별로는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9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방권 의대 평균 97.2점을 0.8점 웃도는 점수다. 이어 고려대 반도체공학과가 97점으로 지방권의 대 평균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다. 이어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96점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95점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95점 순이었다.

의대 합격선은 여전히 반도체계약학과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합격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가천대를 제외한 전국 38개 의대의 평균 합격선은 경인권 의대 99.0점, 서울권 의대 98.8점, 지방권 의대 97.2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계약학과 평균은 96.2점으로 의대보다는 낮았지만, 서울대 자연계 일반학과 평균 95.8점보다는 높았다.

이번 분석은 정시 합격점수를 공개한 5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는 수시에서만 선발하고, 울산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정시 합격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업 연계별로는 SK하이닉스 계약학과와 합격선이 삼성전자 계약학과보다 높았다. 고려대·한양대·서강대 등 SK하이닉스 연계 3개 학과의 평균은 96.7점으로 집계

됐다. 연세대·성균관대 등 삼성전자 연계 2개 학과 평균은 95.5점이었. 두 기업 연계 학과 간 평균 점수 차이는 1.2점이다.

모집군 배치도 수험생의 지원 전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는 기군에 속해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능했고, 서강대와 한양대는 나군으로 묶여 서로 중복지원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반도체계약학과 간 선호도뿐 아니라 모집군별 선택 구조도 최종 등록 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2027학년도에는 합격선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모집 구조에 변화가 예상되는 데다,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와 취업 연계 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의대와 반도체계약학과, 서울대 자연계에 동시에 합격한 수험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향후 최상위권

자연계 입시 판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직전년도인 2025학년도에는 각 대학이 국수탐 평균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같은 기준의 추세 비교는 어렵다. 2024학년도 역시 의대의 발표 기준이 백분위, 자체 환산점수, 등급 등으로 달라 직접 비교가 제한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합격선이 지방권 의대 평균을 웃도는 등 일부 반도체계약학과가 의대 합격선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선 점은 최상위권 자연계 입시 구도 변화를 보여준다”며 “2027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반도체계약학과 선호 확대가 맞물리면서 의대, 반도체계약학과, 서울대 자연계 사이에서 수험생들의 최종 선택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상명대, 베트남 韓 문화교육·유학 활성화

베트남 사이공한글학교와 ‘맞선’ 재외동포·한배가정 자녀 대상 교육 대학 교육 기반·인프라 연계 지원



(왼쪽부터) 김규 사이공한글학교 교장, 김종희 상명대 총장. /상명대

상명대학교(총장 김종희)는 19일 서울 캠퍼스에서 베트남 사이공한글학교와 한국 문화 교육 및 한국 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이공한글학교는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한글학교로, 재외동포와 한배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 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베트남 학생 대상 한국어 학습 지원, 한국 유학 정보 제공 및 진

학 상담, 유학생 유치와 유학 지원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추진한다.

상명대는 사이공한글학교의 한국어·한

국 문화 교육 기반과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연계해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과 한국 유학 준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희 상명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 학생들에게 상명대의 교육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규 사이공한글학교 교장은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상명대와의 협력은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진학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명대는 지난 3월 사이공한글학교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상황 점검

법무부·농식품부 장관과 현장 간담회 연말까지 최종 900여명 입국 예정

양주시는 19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숙소와 농작업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운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154개 농가에 7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경기도 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운영 중이다. 현재 653명이 입국해 현장에 투입됐으며, 연말까지 최종 900여 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3.9배 증가한 규모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경기북부 최초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동 출입국외국인등록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국 당일 통장 개설 윈스톱 서비스,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마약검사, 임금체불 방지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백석농협과 협력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라오스 근로자 20명을 직접 고용해 현재까지 50여 농가에 약 500회 이상 농작업 인력을 지원하며 소규모·고령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장관들은 외국인등록 출장서비스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근로자 인권보호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인력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서울한양CC, 신축 클럽하우스와 새출발

350억 투입해 미래 100년 기반 마련



20일 서울한양CC, 조갑주 이사장이 클럽하우스 준공식 기념사를 하고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컨트리클럽이자 한국 골프의 상징으로 꼽히는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이 신축 클럽하우스 준공과 함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사단법인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이사장 조갑주)이 20일 신축 클럽하우스 준공식을 개최하고 미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다. 행사에 회원과 골프계 관계자와 지역 정관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축하했다.

1927년 문을 연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은 대한민국 골프 역사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국내 최초의 정규 코스 컨트리클럽이다. 이번 클럽하우스 재건축은 오랜 기간 회원들이 염원해 온 사업으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새롭게 문을 연 클럽하우스는 총사업비 35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연면적은 9253.04㎡(약 2799평)에 이르며,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특히 클럽하우스는 세계문화유산인 서삼릉과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자리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회원들에게는 보다 쾌적한 휴식 공간과 수준 높은 라운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갑주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준공식은 단순한 건축물 완공을 넘어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회원들의 오랜 성원과 관심 속에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식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신축 클럽하우스는 회원 중심의 공간 구성과 미래지향적 서비스 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며 “공사 기간 동안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아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의 전통과 정체성을 담아내면서도 현대적인 시설과 편의성을 갖춘 공간으로 탄생했다”며 “회원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골프클럽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해돋이 / 05:11 | 해질 / 19:57

오늘의 날씨

6월

22

일(月)

음력 : 5월 8일

수도권 날씨

21~2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18/29

동두천 19/28

백령도 18/28

파주 18/28

가평 17/27

서울 21/29

양평 19/28

인천 20/28

수원 20/28

용인 20/28

평택 19/2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주유소 2시간 반 줄었다...우크라 드론에 러 53개 지역 휘발유 제한 /사진 뉴스

▲쿠바 외무 “루비오 미 국무장관, 쿠바 석유제재 없다고 거짓말” 비난

▲“스타머 英 총리 22일 사임 표명”...정부 “직무에 전념” 반박

▲日, 중국·대만산 스테인리스강에 예비 덤핑 판정

▲美,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 체계전개...“대중 억지력 강화”

▲이라크 서부 국회의원 저택에 무인기 공격...사상자·피해보고는 없어



“가볍게 한잔” 주류시장 믹솔로지 열풍 L2



Life

금융위원회 ‘금융위시’ 시상 1800만원 포상 L4



회전초밥 시스템화... “누구나 즐기는 가족외식 아이템으로”



새벽을 여는 사람들

으뜸스시 서준기 대표

매일 급변하는 치열한 외식업 현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열고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이들이 있다. 이번 주인공은 가난과 외로움이라는 역경을 극복하고 현재 전국 35개 매장을 이끌고 있는 회전초밥 브랜드 ‘으뜸스시’의 서준기 대표다.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암 투병 그리고 이어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까지. 소년 서준기에게 세상은 서늘한 곳이었다. 중국집 볶음밥 한 그릇을 시켜 아침에는 밥을, 점심에는 짜장을, 저녁에는 짬뽕 국물을 비벼 먹으며 세 끼를 버텨내던 소년은 이제 월 순이익 1억원을 올리는 청년 사업가로 외식 시장을 달구고 있다. 외식업계 바닥에서부터 다진 뼈저린 경험을 무기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회전초밥’이라는 치열한 레일 위에서 승부수를 던진다.

식당 등 16개 매장 거쳐... 현장경험 풍부 반짝 유행보다 장기 생존방식·아이템 고심 기존 회전초밥 틀을 깬 ‘으뜸스시’ 출범

◆15년 외식업 종사... 회전초밥 승부수

서준기 대표가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었던 것은 아니다. 하루 16시간씩 새벽에는 목욕탕을 청소하고 밤낮으로 배달을 다니며 모은 3500만원으로 22세에 치킨집 공동 창업을 시작했다. 이후 고깃집, 정육식당, 카페 등 무려 16개의 매장을 거쳤다.

서대표는 “15년 가까이 외식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원칙은 ‘유행만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짝 흥행하는 아이템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는 있어도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품과 예측할 수 없는 출구 전략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누구나 쉽게 뛰어드는 치킨집과 고깃집은 한정된 시장 내에서 포화되면서 출혈 경쟁이



서준기 으뜸스시 대표

심화됐다. 유행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찾아왔다.

그는 외식업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다. 외식업계에서 난이도가 높다는 ‘일식’과 그중에서도 관리하기 까다롭다는 ‘회전초밥’에서 그는 확신을 세웠다. 또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당일 계약 체결했던 그의 과감한 추진력이 ‘으뜸스시’를 출범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장인의 영역 대중화

장인의 손맛에 의존하는 기존 초밥의 틀을 깨는 것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으뜸스시의 핵심 역량은 돌아가는 레일 위에서 신선도는 완벽하게 통제하는 매뉴얼이다.

서대표는 우선 초보자도 일정한 정량으로 밥을 지을 수 있도록 초밥 성형기를 도입했고 당일 손질한 생선 납품 시스템과 소스 표준화를 구축했다. 단 하나의 소스를 완성하는 데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한다. 독자적인 소스 배합으로 맛의 기준점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맛의 스펙트럼도 넓힌다. 날것을 선호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육류를 활용한 초밥을 개발하는가 하면 어린이 취향을 정조준한 단란 소스를 초밥, 튀김, 디저트 등에 다각도로 접목한다.

그는 “회전초밥 역시 과거 반짝 유행에 그쳤던 시기가 있었지만 으뜸스시는 회전초밥

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가족 외식 아이템’으로 진화시키고 있다”며 “메뉴 호불호를 개선해 가족 단위 손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객단가가 상승했고 높은 회전율이 맞물리면서 소형 매장에서도 고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으뜸스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은 본점 기준, 평균 1억원 이상의 월 매출을 견고하게 유지하며 가맹 사업의 기초 체력을 다지고 있다. 이달 포항에서 제35호 매장이 추가로 문을 열었고, 오는 7월 울산 매장을 포함해 8월까지 제40호 매장까지 가맹 계약을 완료해 가파른 출점 행진이 이뤄지고 있다.

◆품질 기반 내실 경영

전국적으로 매장이 늘어남에 따라 서대표는 ‘속도 조절’에 더욱 집중한다. 외형 성장에만 몰두해 매장을 확장하기보다 향후 100개, 최대 200개로 순차적 개점을 이어가는 동시에 가맹점 하나하나가 시장에 확실하게 정착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사가 물류 공급망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주력 메뉴인 새우가 통관 문제로 2~3주간 발주가 묶여 대체 상품을 찾아 사방으로 뛰어다녀야 했던 서대표의 에피소드는 이러한 경영 방침을 뒷받침하는 자산이 됐다.

그는 “수입산 해산물이나 생크림 같은 핵심 식자재는 국제 정세나 통관 이슈로 갑자기 공급이 끊기는 ‘쇼트’를 겪기도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으뜸스시는 전문 유통회사와 계약해 제3자 물류 시스템을 마련했고 특정 품목의 수급이 막히더라도 발 빠르게 대응 가능한 상품군을 본사가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시적인 세(勢) 확대에 연연하기보다, 가맹점 평균 월매출 1억원 이상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점검은 없다

이처럼 물류 및 식자재 리스크를 본사가 완

전히 흡수하는 책임 경영과 함께 서대표의 가맹점 관리도 철저하다. 그는 점수 매기기식 품질·서비스·위생(QSC) 점검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더하고 있다. 개인 의지가 높은 가맹점주들과는 매일 소리 사진으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그는 “매장에 상주할 수는 없다라도 숙련된 눈으로 보면 소스 정량이 맞는지, 토치질이 과해 밥이 타지는 않았는지, 화가 덜 익어서 비린내가 날지 사진상으로도 보인다”며 “초밥 위 소스 흐름이나 활어 선도로 레일 회전율까지 파악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각종 코멘트를 전달하면 점주들의 실력과 습관이 상향 평준화된다. 본사를 믿고 동행을 선택한 이들을 만큼, 저만의 노하우라도 아낌없이 전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 역시 점주들의 현장 의견을 유연하게 수용한다. 매장 동선에 대한 불편, 메뉴 손실을 등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사 연구개발(R&D) 센터와 직영점에서 사전 점검으로 적극 시험하고 있다.

육류 활용 초밥 등 메뉴 호불호 개선 본점기준 월매출 평균 1억 이상 유지 전국 출점행진... 40호 매장 계약 완료

예비 창업자들을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자칫 ‘장사나 해볼까’라는 인일한 태도는 백전백패의 길로 빠지게 된다”며 “외식업은 자본만 투자하면 수익이 저절로 창출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본사는 쌀을 씻는 법까지 알려줄 뿐, 결국 밥을 맛있게 짓는 건 점주 자신의 몫임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종착지는 ‘사회공헌’

서대표의 24시간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순간의 연속이다.

그는 “연세가 은퇴하게 된다면 정말 과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 잔 마시며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도 “그래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거의 저처럼 막대한 길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무료 강의 센터를 설립하겠다. 지역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공헌할 수 있다면 참 보람찰 것 같다”고 전했다.

으뜸스시를 이끄는 그의 경영 철학이자 사훈은 ‘생각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다. 볶음밥 한 그릇으로 배고픔과 고단함을 달래던 소년은 멈추지 않는 발 빠른 행동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수많은 자영업자의 인생을 바꾸어 가고 있다. 치열한 외식업 시장에서 그가 열어젖힐 다음 새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이창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으뜸스시 매장 내 ‘자동 초밥 성형기’

/강성진 기자 ksj@

메트로 한줄뉴스



▲일본, 월드컵 통산 1000번째 경기서 튀니지 4-0 꺾고 대회 첫 승 /사진 뉴스시
▲ESPN “퀴라소에 첫 승점 안긴 골키퍼, 월드컵 최다 선방 타이”

▲김혜성, 트리플A ‘4경기 연속 안타’ 무산...고우석, 두 경기째 ‘흔들’
▲박지현, WNBA 데뷔 이후 최고 활약...22분 뛰며 13득점

▲이도희 이란 여자배구 감독, AVC 올해의 지도자상 후보
▲프로농구 LG, 이광재 코치 영입...“소통 능력 뛰어난”